



[화물연대 운송거부] 석화업계 78만톤 출하 차질 피해규모 1兆 추정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34.33 (-45.51)	코스닥	732.95 (-7.65)
금리 (미국 3년)	3.616 (-0.034)	환율 (원/달러)	1299.90 (+0.20) (2일)

韓 '반도체 특별법' 낚잠 잘 때, 中 232단 낸드 양산

中 YMTC '반도체 굴기' 현실로 지정학적 리스크 속 놀라운 성과

엑스태킹 美 핵심 기술 필요한데 무역제재 강화에 생산 늦어질 듯

중국이 낸드플래시 세계 최선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한국 반도체 '샌드위치'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테크인사 이츠는 최근 중국 YMTC가 출시한 SSD에서 232단 낸드 플래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YMTC가 232단 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앞서 YMTC는 올해 안에 200단대 낸드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128단에서 100단대 후반을 건너 뛰고 바로 200단대로 진입한다는 것. 애플이 YMTC에서 낸드를 공급받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YMTC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삼성전자도 최근에서야 200단대로 추정되는 8세대 V낸드 양산을 밝혔다. 그나마 마이크론이 그보다 먼저 232단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238단 낸드 개발을 발표했다. 양산은 내년에서야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YMTC가 232단 낸드 양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강화한 상황,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수 없고 애플과 거래도 끊겼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미검증명단에도 올라 더이상 미국 기

업과 거래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YMTC 낸드는 미국 기술을 필수로 한다. 핵심 기술인 '엑스태킹'이 미국 엑스페리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미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생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엑스태킹은 메모리 셀 웨이퍼와 별개로 또다른 웨이퍼에 주변부 회로를 새겨 합치는 방법이다. 다른 낸드 제조사들이 주변부 회로를 셀 아래에 넣거나 옆에 넣는 것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비싸면서 품질도 낮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서 적층 경쟁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YMTC는 200단대 낸드 양산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양산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YMTC가 200단대 적층 기술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반도체 업계를 충분히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낸드 양산에서 적층 기술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메모리 셀을 얼마나 작고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에 따라 용량과 속도, 수율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YMTC가 더블스택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싱글스택으로도 116단까지 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까지도 100단대 초반을 싱글스택으로 쌓을 수 있던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64단이나 128단에서는 조악하다는 혹평을 피하



'16강 주역' 손흥민-황희찬 훈련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황희찬이 4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 못했던 YMTC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확보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YMTC가 당장은 미국 무역 제재 등으로 시장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비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머지 않아 미국 의존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조격차'를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경쟁국가 대비 2배를 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반도체 특별법조차 몇달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3040 신흥부자 8만명 육박 주식·예금으로 종잣돈 불러

KB금융 '한국부자 보고서'

10억 이상 보유 부자 42.4만명 59% 디지털자산 투자 의향 없어 전통부자, 재건축 등 부동산 투자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자산 비중을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부채는 2019년 대비 10%포인트(p)가량 줄었다.

KB금융그룹이 4일 발표한 '2022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4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83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보유 총 금융자산(4924조원)의 58.5% 수준이다.

이들 중 금융자산이 10억~100억원 미만인 부자는 38만5000명으로 전체 부자 중 90%를 차지했다.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부자는 7.3%(3만1000명), 300억원 이상인 부자는 2%(8600명)다.

◆한국부자 "1년내 예·적금, 주식투자 늘릴 것"

한국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6.5%, 금융자산 38.5%로 구성됐다. 일반가구의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9.5%와 금융자산 16.1%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가구의 2.4배 수준이다.

자산의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컸고,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외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

한국부자는 향후 1년 동안 금융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 투자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금리인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부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향후 3년 내에는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로는 거주용 외 주택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 순이었다.

한편 한국부자의 59.3%는 디지털 자산투자에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39.9%)와 디지털자산 가치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36.1%)가 가장 많았다.

◆신흥부자 "종잣돈 기준 7억원... 디지털자산 이용안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 중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49세 신흥부자는 7만8000명으로 한국부자의 18.4%를 차지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여야 극한 대치에 300조 민생예산 묵일 판

2+2 협의체 가동 예산안 협상 재개 연내 불발 땀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을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이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안제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

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

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3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노조원엔 공감 없는 불공정"
▲ 조경태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 즉각 폐지돼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IRA 개정-유예 논의 요청" ... 한국계美 의원들에 재차 서한
▲ 국회 대표단,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논의 차 방미



▲ 한 총리, 가나 공식방문 투자·원전 등 협력 논의... 귀국길 /사진 뉴시스
▲ 강성조 전 경북 행정부지사,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최신변이 백신 선택지 4개로... 저조한 접종률 끌어올릴까

식약처, 삼바서 생산하는 2가 백신
모더나 스파이크박스2주 사용승인
오미크론BA.4·5에 중화항체 반응

코로나19 바이러스 BA.4·5 변이에 대응하는 두번째 백신이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 선택지는 총 4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7일 먼저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코미나티2주'에 이어 BA.4·5 대응 백신은 2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스파이크박스2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실에서 의료진이 모더나사의 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 2주를 분주하고 있다. /뉴스시스

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원료

를 외국에서 공급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해 국내 공급한다.

모더나에 따르면 BA.4·BA.5를 함유한 스파이크박스2주 백신 임상에서

모더나의 기존 백신 스파이크박스주보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체 BA.4와 BA.5에 대한 강력한 중화항체반응을 확인했다.

스파이크박스주 접종 그룹과 비교해 BA.4·5를 함유한스파이크박스2주를 접종한 그룹의 BA.4·BA.5 대항 기하평균역가비율은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 각각 5.11배, 6.29배로 확인됐다. 스파이크박스2주의 부작용은 스파이크박스주 두 번째(기초 접종) 또는 세 번째 접종(부스터샷)과 유사하거나 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스파이크박스2주'의 긴급 사용승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5인에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추가접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변이 대응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늘어났다. 현재 초기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 대응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2가 백신 2종과 화이자의 BA.4·5 백신 1종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최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접종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접종률은 지난달 3일과 비교할 때 60세 이상은 8.4%에서 20.5%로, 감염취약시설은 5.0%에서 26.7%로 증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尹 대통령 “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하도록 준비”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 대책회의
“기업·국민 불편 최소화 조치 강구
조직적 불법·폭력행위 행사할
타협 안하고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정유(탱크로리)·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불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

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영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관계장관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폭

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영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불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리오프닝’ 시간은 걸릴 듯

● 차이나 뉴스&리포트

중 당국, 베이징 PCR검사 완화
고령층 백신접종 목표 등 전달

“감염사례 급증할 수밖에 없어
감염자 감소 이후 경제회복 가능”

중국식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시작됐다. 대규모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한 선제적인 감염자 선별과 엄격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가능케 했던 대표 조치들이 대거 완화됐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증상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전하는

등 방역 정책의 전환은 확실해졌지만 관건은 속도다. 중국의 백신접종률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4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수도인 베이징은 이달 1일부터 PCR 검사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역 필수인프라인 의료시설의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PCR 검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이나 사회활동이 없는 노인·영아들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24~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거주지에 귀가시에도 음성 결과가 없으면 제재를 받을 정도였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고강도 방역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시민 생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해 나갔다. 봉쇄 지역의 신속한 해제 등을 포함해 과도한 방역은 금지하고, 고령자의 백신접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이신에 따르면 이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가 각 부처에 하달됐다. 내년 1월 말 전까지 ▲8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90%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률 90% ▲60~79세 고령층 중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접종 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률 95% 달성 등이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86.4%, 고위험군인 80세 이상 2차 접종률은 65.8%에 불과하다.

리오프닝을 위한 명분도 쌓는 중이다. 중국의 방역 사령탑인 쑨춘란 국무부 부총리는 최근 방역 회의에서 대표 정책이었던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는 대신 ‘코로나19의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방역 정책 완화는 감염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백신접종률은 여전히 낮고,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다.

노무라의 루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식 위드 코로나의 길은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많이 들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감염 사례가 수백만건으로 급증할 것이며 내수 반등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회복은 감염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다.

회사 등 많은 공공장소는 여전히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24시간내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석화제품 출하량 평시 21% 수준 ... 피해규모 1兆 이상 추정

3일까지 누적 출하차질 78.1만t
정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나서
현장점검·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산자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4일 울산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석유화학 업계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시멘트 업계에 이어 정유 등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

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 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

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학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변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주유소 확산 방안을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휘발유 품질사태 확산... 전국 70개 이상 주유소 업무마비

주유소 기름재고 평균 2주... 전국 비상
정부,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진 4일 '휘발유 품질'을 내건 주유소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3일 기준 서울 31개, 경기 15개, 강원 10개, 충남 9개, 충북 3개, 인천 3개, 대전 2개, 세종 1개로 전국 74개 주유소가 품질 사태를 겪고 있다고 공지했다. 지난 1일에는 33개, 2일에는 전국 52개 주유소가 품질 사태를 겪어 점차 품질 주유소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들이 미리 휘발유·경유 재고를 확보해왔지만 소비자 수요가 많은 곳은 휘발유부터 재고가 동나기 시작한 것이다. 파업 초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터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들의 기름 재고는 '평균 2주'였다. 주유소마다 석유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다르지만 한 달에 2회 정도 재고를 확보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 해도 주유소 기름 저장 탱크의 용량이 부족하기에 주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품질은 수도권 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제품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

부분의 주유소가 휘발유 저장 탱크가 경유 저장 탱크보다 작은 탓이다. 여기에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내 외곽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도심 경우 품질은 휘발유보다 늦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제품은 탱크로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개인이 임의로 일정량 이상으로는 운반할 수 없어 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접 주유소끼리 수송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 제품 스톱프를 할 수 있는 주유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 60대가

량을 확보해 긴급운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약 70%, 수도권은 9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저유소에는 기름이 충분하지만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가 현저히 부족해 일선 주유소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저유소가 있지만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도를 넘나들며 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주유소들도 생겼다. 저유소에서 출발할 수 있는 탱크로리의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유분야도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정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신흥부자, 향후 수익률 높은 투자처에 '부동산' 꼽아

>> 1면 '3040 신흥부자...'서 계속

신흥부자의 종잣돈 기준은 최소 7억 원이다. 종잣돈을 모은 주된 방법은 부동산자산 투자(46%)와 근로소득(43.7%), 부모로부터의 지원·증여·상속(40.2%)이 많았다. 디지털 자산 등 기타자산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경우는 0%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흥부자는 종잣돈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와 예·적금 적립으로 자산을 키웠다.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 투자(54.0%)였고, 거주용 외 일반 아파트

(36.8%), 예·적금(31.0%), 거주용 부동산(24.1%), 토지·임야(17.2%) 등의 순이었다. 신흥부자는 주식, 예·적금,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불린 반면 전통부자는 재건축아파트, 토지·임야,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키웠다.

다만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향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금융상품보다 부동산이 많았다.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유형은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주택'으로 각각 42.5%를 차지했고, 금융상품으로는 주식이 34.5%를 차지했다.

◆'부채, 자산아냐'...코로나때 빚부터 갚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부자는 금융 자산은 줄이고 부동산 자산은 늘렸다.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0년 39.9%, 2021년 36.6%로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 자산비중은 같은기간 54.3%에서 56%, 59%로 늘었다.

보수적으로 부채도 관리했다. 한국부자에게 부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부채는 자산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3%에 그쳤고,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증액된 지원사업 예산 혜택 다 못 받을 수도”

>> 1면 '여야 극한의 대치...'서 계속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

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넷플 보는 날엔 연희동으로… 고도화된 공감 플랫폼 목표”

3040 벤처 CEO 열전

‘넷플연가’ 세븐픽처스 전희재 대표

“퇴근 후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재택근무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 낯선 이들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안전한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희재 세븐픽처스 대표는 2019년 ‘넷플릭스 보는 날엔 연희동에 가야한다’는 의미의 커뮤니티 플랫폼 ‘넷플연가’를 론칭했다. 넷플연가는 ‘넷플릭스 혼자 보는 당신을 위한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와 책 등을 포함한 여러 콘텐츠를 함께 보고 즐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확장해가고 있다.

넷플연가는 론칭 이후 코로나19 기간 집에서 혼자 OTT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장했으며, 20~30대가 주요 이용자다. 올해 10월 기준 넷플연가 정기모임은 450개, 정기모임을 경험한 유저들만 3600명에 달한다.

전희재 대표는 넷플연가 시작 전 수영 선수, 파이낸스, 문화예술 PD, MARU180 스타트업 매니저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가, 창작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은 넷플연가를 시작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을 마치고 남아서 창작자들의 작업실에서 여러 주제로 밤늦도록 이야기할 때가 기억에 남는다”며 “일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만나는 것이 좋았고, 창작자들의 작업실은 공간이 주는 아우라가 있어서인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직장인들도 이런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넷플연가 서비스 오픈의 시작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넷플연가는 멤버십 제도(월 5만~7만원 / 3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주제는 연애부터 여행, 영화, 요리, 와인, 글쓰기 등 다양하며 최대 12명이 모여 3개월 동안 네 차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미리 안내된 영화를 본 뒤 오프라인에서 모여 다양한 사



넷플연가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세븐픽처스)

혼자 OTT 즐기는 이용자 위해 론칭 비슷한 취향 이용자들끼리 정기모임 모임만 450개, 참석 유저 3600여 명

참여비용 다소 높지만 진정성 높아 질 높은 커뮤니티 경험·시간에 방점 플랫폼 확장 중… 지속 서비스 개선



전희재 대표가 넷플연가를 소개하고 있다.

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 동호회와 다른 점은 모임 참여 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전 대표는 “멤버십 금액은 모임에 참여하는 태도, 진정성 면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준다”며 “비교적 높은 멤버십 참여비용과 준비된 커리큘럼과 전문성 높은 모임장, 커뮤니티 문화와 운영 시스템 등으로 질 높은 커뮤니티 경험과 시간을 만드는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진 데다, 취향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즐거운 분위기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외에도 정기모임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다양해졌다. ‘환승 연애’, ‘체인지데이즈’, ‘솔로지옥’ 등 OT

T에서 방영되는 리얼리티 연애 예능을 보고와서 각자의 연애관을 이야기하는 모임도 인기가.

넷플연가는 지난 9월 14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트롱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캡),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가 투자에 참여했다. 전 대표는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확장되도 고객 경험이 낮아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취향을 찾을 수 있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야죠.”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희재 세븐픽처스 대표

“내년 세계 경기회복 둔화… 주요 리스크는 ‘분절화’”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美·中 무역갈등 촉발 분절화
中 제로코비드 정책 등 영향

내년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주변국의 경기까지 위축시켜 회복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와 중국의 방역정책,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내놨다.

◆美 기준금리 인상, 주변국 경기위축 시켜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 강화로 내년 주변국의 경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변국은 물가상승, 자본 유출 등 달러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달리 코로나19로 글로벌 성장세가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신흥국은 경제회복이 더딜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94개국에 212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기존 금융위기 시기 지원한 국가(66개국)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선진국 부진을 보완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의 인적·물적·자본 투자가 더 심하게 위축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역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나 서비스교역은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

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주택, 운송장비의 비용이 인상됐지만 소비여력이 감소하며 재화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항공 좌석량은 지난 2021년 4분기 2300만석에서 지난 10월 3400만석으로 47.8% 증가했다.

◆배타적 경쟁, 중국 방역정책 심화… 세계경제 리스크 ↑

한은은 특히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분절화가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대(對)중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주요 IT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중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약진하면 향후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GVC구조분절화는 비효율 증대로 이어져 비용상승을 수반하게 돼 향후 고물가 환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5%p 추가하락 한다.

또 부동산 부분(부동산 서비스업, 건설 등)이 10% 위축시 전·후방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체 GDP가 2.2~2.9%p 떨어진다. 세계경제 분절화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을 제약

하고, 정책여력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신흥국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 바 있다. 1

995~2001년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외채 및 민간신용이 확대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14~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상반기 소득수지는 아르헨티나 -45억달러, 브라질 -270달러, 칠레 -65달러, 콜롬비아 -21달러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與野 담판협상에 달렸다

여야, 9일까지 예산안 처리 목표
지도부 간 담판 협상 가능성
정기국회 회기 넘긴 사례 없어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협의해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쟁점 현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정치 담판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한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툰 것은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안 문제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은 감액하고, 이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뉴시스

명 당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 게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식에 반발했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소형 스마트원전(ISMR),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역시 민주당 반발로 처리

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 공제(총 12억원)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현행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협의되지 않자 주요 언론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을(민주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고집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

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사례는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은 법정 시한인 12월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020년 역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나(2015년, 2016년, 2021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5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넘겨 풀어갈 것이라고 합의한 만큼 ‘정치 담판’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생 주력’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00일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고 대
여당 중심으로 비판 커지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을 맞는다. 77.77%의 최종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이 대표 취임 후 행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민생’, ‘사법 리스크’다. 취임한 직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설치였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 야당’이란 기치 아래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문제에 대응해왔다. 지난 100일간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대구 등이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을 지도부 회의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5대 분야 22대 민생 법안도 이 대표 주도로 준비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맞춰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정기국회 7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해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리랜드, 앤디 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고 요청 서한 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 분의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그간 한미 관계의 외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IRA 법안 취지인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한 내용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서한에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질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생 행보는 발목을 잡힌 형세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할수록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잇달아 구속됐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자 당내 비명(非 이재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압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초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쳤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검찰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언제든지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 등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서훈 구속에 文 “최고 北 전문가 꺾어버려”

(前 대통령)

“신뢰의 자산 다시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서 실장 같은)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 실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3일) 구속됐다.

서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 외 배제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물의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비판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서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무엇인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물이로 규정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주담대 가입땐 ‘금리상한 특약’, 대출 있다면 ‘대환대출’로

‘변동금리형 주담대’ 이자 절감 방안

4대 시중은행, 금리 8%대 눈앞 주담공,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대출한도 집값기준 4억~6억 상향 ‘금리상한형 주담대’ 금리 상승때 상승분 연 0.75%p, 5년간 2%p 제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면서 그동안 시들했던 정책 대환대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대출 이용 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280~7.805% 수준으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현행 기준금리 3.25%를 3.75%까



지 인상하면 시중금리 상단은 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가입 예정자라면 ‘금리상한 특약’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정책금융상품 등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추천했다.

먼저 4%가 넘는 금리로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알아볼 만 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

〈제3차 안심전환대출 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급자리론 금리(22.11월현재)	4.25	4.35	4.40	4.45	4.50	4.55
안심전환대출(45bp인하)	3.80	3.90	3.95	4.00	-	-
저소득 청년층(55bp인하)	3.70	3.80	3.85	3.90	-	-

(단위: %)

/자료=주택금융공사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야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다. 변동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해당 상품으로 대체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집값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도 삭제할 예정이다. 추후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25조원으로 올

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방법은 주담공이나 6대 은행(NH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은행 6곳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그 외 금융사라면 주담공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급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목기지는 제외된다.

◆대출 예정이라면 ‘금리상한형 주담대’ 전문가가 또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 재출시한 상품이다. 출시 초반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상품 내용을 개편하고 금리가 급등한 지난 7월 이후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총 116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가입 실적 115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약 4개월간 가입자가 10배 늘어난 셈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를 직전 금리 대비 연간 최대 0.75%p 또는 5년간 2%p 이내로 제한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원금상환이 일부라도 가능한 고객이라면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보험사 사은품 상한 20만원으로... 경품경쟁 과열 우려

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케팅비용 증가 등 부작용 야기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 계약시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의 한도가 7배 가까이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부터 각종 전자기기를 증정할 수 있어 보험 상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아닌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상한 금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적용 여부를 시사한 이번 규제 완화에 보험업계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사은품은 보험 상품과 관련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면 후미등을 증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사은품 지급 기준은 연간 보험 가입액의 10%와 3만원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제한했다. 이제는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스마트워치 등 수요가 높은 사은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낡은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보험사의 상품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올해로 20년째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사은품 금액 확대를 두고 체리피커 양산과 보험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와 보장액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영업을 통한 경쟁력 구축에 나선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 혜택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체리피커, 블랙컨슈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수의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상품성 마케팅 강화 기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쟁이 시작되면 과열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반면 규제 완화에 대해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은품

금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할 뿐 상한에 맞춘 경품 공세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 상품에 사은품 가격을 포함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높은 편에 속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체리피커 양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험료 비율 규제 완화 또한 쟁점이다. 현행 10%를 유지하게 된다면 연간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2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20년 만에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보험 가입액 비율 또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NH농협카드 해외결제 삼성페이 오픈

NH농협카드 이용자들도 해외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해외 현지에서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용 고객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신용·체크카드(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삼성페이 모바일 앱에서 해외 결제서비스 신청 후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삼성페이를 100달러 이상 해외가맹점 결제 시 선착순 1000명에게 캐시백 1만원을 제공하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내·외 전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9명에게 캐시백 및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1등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1명) ▲2등 삼성 The Serif TV(3명) ▲3등 에어팟 맥스(5명) ▲4등 캐시백 1만원(1000명) 등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엔데믹 가시화로 연말 해외여행 고객이 급증하면서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편리한 금융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부자 10명 중 8명 “대출금리 7% 넘으면 대출 안받을 것”

우리금융, 자산관리 고객분석 보고 10명 중 6명 “6%대 되면 대출 포기”

금융자산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부자 10명 중 8명은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이면 신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자들 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대출금에 부담감이 커진 셈이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4일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설

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2022년 자산관리 고객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11억 5896만원이며 이 중 금융자산 2억 7591만원, 부동산 8억 5323만원 등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 4208만원이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부동산이 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31.1%다. 금융 포트폴리오의 경우 예적금이 32.6%로 비중이 가장 컸고 주식 등 직간접투자 27.8%, 수시입출금 18.8%, 개인연금

12.9%, 저축성보험 7.9% 등 순이다. 부동산은 거주용 비중이 72.8%였다.

대중부유층은 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중부유층 10명 중 6명(64.9%)은 대출금리가 6%대에 이르면 신규 대출을 포기하며 10명 중 8명(83.5%)은 금리가 7%가 되면 대출을 새로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금융상품의 수신금리가 연 5%대라면 대중부유층의 37.2%가, 6%대라면 절반 이상(58.1%)이 투자 자산 중 예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중부유층 응답자의 64.9%가 내년

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상반기(35.5%)까지로 전망한 응답자가 하반기(29.4%) 보다 많았다. 응답자 60.6%는 물가상승 역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부유층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는 향후 3년 간의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금과 달러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반면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동안 주식 5.4% 부동산 78.3% 가상자산 13.0%의 가격 하락을 전망했지만 금과 달러 가격은 각각 3.6%, 5.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모두가 함께 웃는 내일, AI로 그려보았습니다



AI 입력 키워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움트고

청년들의 잠재력이 활짝 꽃피는 세상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지고

금융 소외계층까지 모두 사라진 세상 ...

*광고에 쓰인 이미지는 AI 아트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사옥 판교 이전

한국조선해양 등 17개사 입주... 신사업·신기술 창출 박차

그룹 기술력 결집... 시너지 극대화
국내 최고 에너지효율화시스템 적용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판교시대”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제철이 이달 사옥을 판교로 옮긴다. 삼성중공업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까지 판교로 본사를 이전하며 IT성지였던 판교가 ‘중후장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글로벌연구개발센터(GRC)로 본사를 옮기고 있다. 현재 본사 이전이 한창으로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GRC는 연면적 5만3000평,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다. 이곳에는 HD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제뉴인, 현대오일뱅크 등 총 17개사가 입주한다. R&D



현대중공업그룹이 경기도 판교에 건립 중인 GRC 조감도.

와 엔지니어링 인력 등 5000여명 직원이 근무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기술경영의 핵심 역할을 할 GRC는 그룹 기술력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룹 제품 개발 기초 연구를 포함해 미래 신사업 신기술 확보에도 중추적인 역할

을 맡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건물 생애주기 관리도 가능하다. 직원들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현대일렉트릭 등 일부 계열사가 입주를 시작했다”며 “연내 입주를 끝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교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로 이전하는 중후장대 기업으로 국내 대표 철강사인 현대제철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제철은 이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크래프톤타워로 사옥을 이전한다. 현대제철은 현재 서울 곳곳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을 분당 크래프톤타워로 통합한다.

크래프톤타워는 2018년 준공했다. ▲알파돔타워 ▲카카오판교아지트 ▲판교테크원 등과 함께 신분당선·경강선 환승역인 판교역 지상에 위치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앞서 판교에는 삼성중공업과 두산그룹도 자리잡았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판교R&D센터를 짓고 본사를

이전했다.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부문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판교R&D센터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1500여명 인력을 수용 가능하다.

두산그룹은 지난 2020년 정자동에 27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설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 뿐만 아니라 (주)두산, 두산 밥캣, 두산큐백스 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분당두산타워는 부지 면적 8943㎡, 연면적 12만8550㎡, 높이 119m의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설됐다. 사우스(South)와 노스(North) 2개 동으로 나뉘었고 상당부가 스카이라이프도로 연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판교는 서울과 가깝고, 지방에서도 접근하기 쉽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며 “인근에 포진한 IT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교에 기업 본사가 몰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바이오 원료 ‘ABS’ 제품 출시

(고기능성 플라스틱)

▶ 최초 ABS 분야 ISCC PLUS 인증 마텔 공급... 친환경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친환경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전량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LG화학의 설명에 따르면 ABS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해 완구류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 PLUS(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을 판



LG화학의 엔지니어들이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을 들고 있다. /LG화학

매하는 것은 LG화학이 아시아 최초다. LG화학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수행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존 생산된 ABS 보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 넷제로의 일환인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LETZero(렛제로)’를 적용

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Mattel)사에 최근 처음으로 공급됐다. LG화학은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최근 ESG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제품에 친환경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기저귀 및 바디제출시했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리모컨, 섯박스 등을 출시하여 탄소 중립 및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중심의 지속가능한 소재로 시장을 선도하고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화에어로, ‘누리호’ 총괄 제작사업 수주

항우연 본계약... 2860억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으로부터 2860억원 규모의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본계약까지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함께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고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누리호 고도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87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우연과 민간기업 주도로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우연이 보유한 누리호 체계종합 기술 및 발사운용 노하우를 순차적으로 전수받게 된다.

내년 예정된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4차례 걸쳐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검증, 지상 관측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향후에는 민간의 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수송’ 사업의 상업화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그룹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허브’를 출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주탐사 및 자원확보까지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0년 영국 위성 통신 안테나 기업 페이저(현 한화페이저)를 인수하고, 미국 위성 통신안테나 기업 카이메타 지분투자에 이어 지난해 세계 최초의 우주인터넷 기업인 원웹의 지분(약 9%)을 확보하는 등 우주 통신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개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하고 있는 세트랙아이는 위성 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이미 진출했다. 한화디펜스와 합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3월에 한화방산(구(주)한화방산부문)까지 합병하면서 발사체 역량을 더욱 다각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올해 수출액 6900억弗... 삼성·SK 등 ‘K-반도체’ 선전

무협 ‘제59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기업·유공자 격려... 산업훈장 등 포상

국내 수출 금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또다시 ‘수출의 탑’을 새로 쌓아올린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 금액은 6900억달러로 지난해(6444억달러)를 넘어선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제59회 무역의 날’을 열고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주재

는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또다시 1200억달러 수출의탑을 쌓아올리며 지난해 1100억 불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숫자다.

SK하이닉스도 300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며 K-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온 공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에스디바이오센서, 한화솔루션 등 다양한 첨단 분야 기업들이 20억불탑을 수상하면서 미래 수출 역군 기대를 받았다.

그 밖에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07개나 많은 1780개사가 수출의 탑 수상 대상에 오르며 꾸준히 늘어나는 수출 성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수출 유공자 부문에는 정경오 회성피엠텍대표이사, 최우각대성하이텍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이장열 서울전선(주)대표이사, 김선규금호폴리캠(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대상자다. 597명이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할 전망이며, 무역협회장 표창도 80명이 받는다.

/김재용기자 juk@

삼성전자 더 프레임

키무스튜디오 작품 전시

삼성전자 더 프레임이 특별한 디자인자들의 색다른 작품을 담는다.

삼성전자는 삼성아트스토어에 키무스튜디오 작품들까지 선보이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액자형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로, 아트스토어를 통해 전세계 주요 박물관 소장작을 비롯해 전세계 50여개 파트너와 2000점 이상 다양한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키무스튜디오는 발달장애를 지닌 디



키무스튜디오 작품 이미지

/삼성전자

자이너 20여명과 비장애인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스튜디오다. 색다른 감성을 지닌 작품들로 순수하고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재용 기자

지하철 와이파이 어쩌나... 5·6·7호선 서비스 안 될 수도

오늘 '28㎒ 주파수 취소' 청문회

SKT 등과 지하철 와이파이 마무리 LGU+, 업계 최다구축... 유감스러워 정부 절차 무시 초고속 경매 지적도 주파수 할당 대가 6200억 손실처리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28㎒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에 달한다. 당초 목표했던 1만 5000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서는 주파수 총 이용기간 5년 중 10%인 5개월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청문회 등을 통해 잘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지만 지하철 공동구축을 진행 중인데, 주파수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애매해진다"고 밝혔다.

5G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3.5㎒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28㎒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28㎒대역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할당이 취소되면 지하철 와이파이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 등에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할당 취소는 면하고 기간단축만 받은 SKT 등 사업자와 손잡고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가 담당해왔던 5, 6, 7호선에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예 상용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신3사 중에서 가장 많은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힌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 3사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구축했다"며 "28㎒ 서비스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시켰으며 통신사들과 같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8㎒대역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과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4년 전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3.5㎒의 전국망 주파수를 기업용인 28㎒ 주파수를 묶음식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매를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해 정부에서도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조차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28㎒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나 빠른 '진정한 의미의 5G'로 손꼽히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진다. 이로 인해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만 하는 등 3.5㎒보다 구축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또한 28㎒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정부 등에서 5G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 이를 밀어붙였다.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자신만만해했던 것과 달리 28㎒에 대한 기업 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취소 통보를 받은 한 통신사

관계자는 "28㎒ 장비 1만 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하면 할당 취소가 되는데, 최근 2~3년 간 코로나로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기업에서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에 장비를 많이 구축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6200억원을 냈는데, 28㎒대역이 활성화되지 않자 결국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정부가 28㎒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정부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28㎒대역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아직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가 취소된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 '제4 이동통신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수십 년 간 투자를 해왔음에도 28㎒대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 했는데, 과연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U+ IPTV로 CSI·NCIS 새 시즌 공개

파라마운트 글로벌 신작 첫 공개 FBI 시리즈 등 3종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가 IPTV와 모바일TV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최신 드라마 시리즈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는 'CSI: 베가스 시즌2', 'NCIS: 하와이 시즌2', 'FBI: 인터내셔널 시즌2' 등 3종이다. 'CSI: 베가스 시즌2'는 글로벌 히트작인 CSI: 라스베가스의 후속작으로, 지난 시즌에서 언급됐던 원년 멤버가 재등장해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TV드라마 역사상 가장 큰 흥행을 거둔 NCIS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인 'NCIS: 하와이 시즌2'는 파라마운트 드라마 최초로 NCIS와 NCIS: 로스앤젤레스, NCIS: 하와이 시즌1의 주인공이 함께 등장하는 회차가 예정돼



LG유플러스 모델이 파라마운트의 드라마 시리즈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이다.

또 파라마운트의 대표 수사물인 FBI의 후속작인 'FBI: 인터내셔널 시즌2'는 현지에서 지난 9월 시작한 이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3종의 신작 콘텐츠는 U+tv 이용 고객 중 월 1만 5400원 상당의 '고급형 요금제' 이상 가입자나 U+모바일tv 고객

중 '기본 월정액'(월 5500원) 또는 '영화 월정액'(월 9900원)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해외 드라마 시리즈의 수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국내 SW분야 최대 규모 축제 연다

'2022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 디지털 강국 재도약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는 장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2022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소프트웨어!'를 표어로 ▲성과 창출 ▲미래 전망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구성된 컨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4개의 행사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

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매년 5만 명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디지털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윤정 기자

SKT 5G기술·서비스 글로벌 시상식 석권

글로벌 어워드, 6년 연속 선정 '올해의 5G 사업자' 상 수상도

SK텔레콤이 앞선 5G 기술·서비스로 연말 글로벌 시상식을 석권했다.

SKT는 차세대 코어망 기술 상용화의 성과로 '글로벌 어워드'를 6년 연속 수상했다. 글로벌 선도 기술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상용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KT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2(Global Telecoms Awards 2022)'와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된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22(Leading Lights Awards 2022)'에서 각각 차세대 코어망 기술과 5G 서비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Informa)'가 주관하는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2'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ICT 분야 대표적인 시상식으로, 지난 2일(한국시간) 총 23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들을 선정했다.

SKT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선도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가상화 혁신(Ground-breaking Virtualization Initiative)' 분야에서 수상했다. 시스템 경량화를 통해 초고속·대용량의 5G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코어망을 상용화하고, 패킷 가속 처리·경로 최적화·다중 흐름 제어 등 최신 기술들을 고도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SKT와 에릭슨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코어망은 기존 물리기반 코어 대비 트래픽 처리 효율을 최대 50%까지 향상시켰고, 산업현장의 통신 장비 증설과 급격한 트래픽 증가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SKT는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6년 동안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VR 서비스, IoT 솔루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등으로 다양한 수상부문을 두루 섭렵하며 사업 역량을 인정받았다.

SKT는 세계적인 모바일 어워드인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22(Leading Lights Awards 2022)'에서도 '올해의 5G 서비스 사업자(5G Service Provid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리딩 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통신 분야 전문 매체 라이트리딩(Light Reading)이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3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SKT는 세계 최고 수준의 5G 속도와 품질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빠르게 5G 커버리지를 확보해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오픈 생태계 조성 5G 옵션4 기술·유무선망 고도화 등 5G 진화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 A.(에이닷)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일을 처리해주고 콘텐츠도 제안해주는 한편, 이동통신 사업자 최초의 메타버스 앱 '이프랜드(Ifland)' 등으로 고객에게 폭넓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은 "세계 통신기술을 선도하는 앞선 기술력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판 커진 ETN시장... 치킨·엑스포 등 다양성으로 투심 저격

ETN 시장 규모 10조원 넘어서
전체 거래 중 개인 비중 36%
제약·리스크 적어 수요 증가세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고객 선점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ETN 상품을 앞다퉀 출시하고 있다.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인 ETF와 달리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다. 무보증, 무담보 상품이라 일부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으며, 만일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장폐지되는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ETF는 종목 10개 이상을 편입해야 하지만, ETN은 최소 5개만 편입하면 되는 등 제약이 적다.

◆국내 ETN 10조 ↑...꾸준한 성장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국내 ETN 순자산 금액은 10조519억원으로 집계됐다. ETN 순자산 금액의 경우 지난 10월(10조6492억원) 대비 5.6%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7조6268억원 ▲2021년 8조8164억원 ▲2022년 11월 10조519억원 등의 순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양한 상장지수증권(ETN)이 출시되면서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유투이미지

같은 기간 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839억원으로 전월(3260억원) 대비 17.8% 늘었다. 상장 종목수도 360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순자산 금액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내 전략(11.4%), 국내 레버리지·인버스(01.7%), 해외 원자재(7.3%) 등이다.

국내 ETN 시장의 성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 참여로 인해 이뤄졌다.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투

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1월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81억 9000만원으로 전체 시장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율도 33.8%에 달하는데, 외국인(0%), 기관(-9.56%)과 달리 홀로 증가세를 보인다.

◆'치킨·폐기물·부산엑스포'...테마형 ETN 출시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잇

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재와 주가지수 선물 상품이 대다수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월 '신한 Fn Guide치킨 ETN'을 신규 상장했다. 이 상품은 치킨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종목 중 10종목을 선정해 투자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신한 Fn Guide 폐기물처리 ETN'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순환 경제 등 새롭게 떠오른 투자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초 특정 이벤트와 연동한 ETN도 등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FnGuide 부산엑스포 추가수익 ETN'이다.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면 수익을 최대 1.2%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며,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누적 0.3% 추가 수익이 확보된다.

금융당국도 ETN 활성화를 위해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10월 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품 허용 ▲채권형 ETN 3배율 레버리지 도입 등을 밝혔다. ETN 적용배율은 변경 전에는 총 4종이었으나 변경 후 채권형 총 12종, 그 외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N 배율이 0.5배로 낮아지는 인버스 0.5배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채권형 ETN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3배율 상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세청(IRA)이 200여 개의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ETN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ETN 시장의 순자산총액과 거래량 상위권 종목이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며 "PTP 이슈로 관련 해외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시장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ETN 상품이 투자수요 이전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분양 캘린더

서울 둔촌동·과주시 등 전국 2만2007가구 분양 전분주택은 4곳 오픈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경기 과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전분주택은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북산동 '변영로서한이더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북대동 '북대자이더스카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 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 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로역·중앙보훈병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충북 청주시 북대동 일원에서 '북대자이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백화점(충청점)과 롯데 아울렛(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위치했다. 청주 예술의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와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짐싸는 재미... 지난달에만 4조 팔아치워

최근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반짝 반등에 성공했던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등 여러 악재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반등을 틈타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7.80% 상승했던 지난 달 4조17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1일에도 28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에 탁금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6547억원으로 연초(71조 7327억원) 대비 31%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금리 인상, 증시 약세 등에
예·적금으로 역머니무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특히 증권사가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자금 이탈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CMA 잔고는 60조338억원으로, 올 1월 3일 기준 69조1867억원에 비하면 9조원 넘게 감소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함에 따라 증시에 투자하기 위한 CMA 자금이 은행 예·적금 등으로 향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연말 산타 랠리를 내심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지난 2

개월간 코스피는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과일 의장이 밝혔듯이 인상의 속도 조절일 뿐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시장은 재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 요소를 때문에 이들의 조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경기침체 진입 여부가 2023년 금융시장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적으로 경기둔화 또는 침체는 채권과 주식에 재진입 기회와 양면의 동전과 같다는 점에서 기회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증권사 3분기 순이익 1.4조... 43% 감소

증시부진·부동산 침체 등 영향
수수료 수익 2.9조... 21.8% ↓

금리인상에 따른 증시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 3분기 국내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58개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3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161억원) 대비 42.8% 감소했다. 전 분기

(1조823억원) 대비로는 32.9% 증가했다.

증권사의 올해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8%로 전년 동기(10.8%)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수수료 수익은 2조935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8% 줄었다. 수탁수수료는 1조 1878억원으로 주식거래대금 등의 감소로 전 분기 대비 9.3% 감소했다.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는 992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2% 줄었

고,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285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 감소했다. 3분기 자기매매손익 역시 1조201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5% 줄었다.

구체적으로 주식 관련 손익은 4829억원으로, 전 분기(4986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채권 관련 손익은 21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 파생 관련 손익은 6971억원으로 전 분기(1조 7515억원) 대비 60.2% 감소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6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589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5% 늘었다. 전체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80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내 4개 선물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48억300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1.3% 증가했다. ROE는 2.6%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이행과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에 따라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다시 해외로. 다시 외국어.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1차 22. 12. 1(목) ~ 23. 1. 11(수)
2차 23. 1. 30(월) ~ 23. 2. 15(수)

모집학부·학과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입학상담

02-2173-2580

TALK ID. cufs

입학지원센터



“현대차·LG 등 스마트공장 지원 덕분에”... 中企 DX 가속화

〈디지털전환〉

대한상의,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 참여기업 생산성 28.5% 개선효과 中企 디지털전환 영향 긍정적 73%



#충남 서산에서 자동차 변속기와 DIFF CASE(자동차 바퀴의 회전비를 제어해주는 부품)를 주력으로 가공 생산하는 ㈜청명은 구멍구멍 수기와 작업자 기억에 의존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품질관리의 가장 큰 장애였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출연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해 '초중중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는 MES 고도화 및 POP 시스템도 마련했다. 해마다 설비를 교체하면서 지금은 자동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량률 32% 개선, 시간당 생산량 10% 증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담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따르면 2014년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 추진 결과 참여기업의 생산성은 28.5%, 품질은 42.5%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현장 컨설턴트 49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협

력사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정부가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대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국내 굴직한 대기업들은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포스코 ▲두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대기업들은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적극 임하고 있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진행된 3차년도 사업까지 대기업 출연금 175억, 정부지원금 118억 등 293억원의 사업비를 조

성해 69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또 올 4차년도에는 165억원(대기업 97억, 정부 68억)의 사업규모로 2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4년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협력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DX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반을 사회전반에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DX) 확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국지엠, 11월 판매량 86% ↑... 흑자 기대

5달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 웨보레 콜로라도, 193대 판매



한국지엠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하고 있다.

올해 손익분기점 돌파와 내년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며 목표달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1월 내수 2057대, 수출 2만803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한 것으로, 한국지엠은 5달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한 758대가 판매됐다. 특히 웨보레 콜로라도가 11월 한달간 총 193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227.1%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5.4% 증가한 총 2만803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해외 시장에서 8달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동일한 차량 플랫폼을 공

유하는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 6369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185.2% 증가세를 보였다.

카를로스 미네르트 한국지엠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10월 국내 승용차 수출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웨보레 트레블러스, 타호 등 웨보레의 인기 차종에 대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연말,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판매 상승세를 기록 중인 한국지엠은 올해 중 손익분기점 돌파와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창원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하는 차세대 CUV가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수출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낼 것"이라며 "올해 노사 간 입단협 역시 순조롭게 마무리돼 목표 달성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내 배터리 3사, 세계 점유율 24.8%

전년비 6.9%p 하락

국내 배터리 3사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7%에서 24.8%로 6.9%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기가와트시)로 2위를 지켰다.

4일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390.4GWh로 전년 동기 대비 75.4% 상승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은 두배 가까이 성장했고, BYD 등 상위권 10위에 오른 중국계 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파나소닉을 포함한 일본계 업체들은 대부

분 시장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이며 하락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로 2위를 유지했고, SK온은 83.2% 증가한 24.1GWh, 삼성SDI는 69% 상승한 18.9GWh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10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48GWh로 전년 동월 대비 1.7배 이상 상승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 모두 성장한 가운데, 특히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상당수 중국계 업체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원자재 수급난에도 28개월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계 중심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위메이드 “현 재판 소명에 최선 다할 것”

“판결 전까지 공식논평 않겠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결 전까지 일체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8일이나 늦은 업비트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위믹스팀은 이에 동조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거래소협의체 다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거래소들은 구체적인 이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앞서 거래소들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첫 심리가 열렸고 기업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위메이드는 “다사의 결정은 불공정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이같은 위메이드 주장에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지난달 21일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며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이 헛방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

‘갤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亞 완판행진

삼성전자, 中·홍콩서 당일 완판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사진)’이 국내는 물론 중국·홍콩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당일 완판됐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갤럭시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100대를 선착순으로 판매했고, 시작 후 8초 만에 완판 반열에 올랐다.

특히 삼성닷컴, 경동, T몰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 시작 후 10초 만에 났다. 홍콩에서도 지난 1일 삼성닷컴 등과 주요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

했으며 모두 완판됐다.

국내에서도 이번 에디션의 인기가 뜨거웠다. 전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진행된 100대 한정판 판매의 경우 시작 후 8초 만에 물량이 동이 났다. 같은 날 오후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구매 응모 추첨에도 많은 수요가 몰렸다. 또 같은 날 삼성닷컴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구매 응모 역시 완판되며 상황리 종료됐다.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갤럭시Z플립4 512기가바이트(GB) 단일 모델로 일반 모델(147만4천원)보다 78만1천원 비싼 225만5천원에 판매했다. 비싼 가



격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최근 국내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패션 브랜드와 협력했다는 점에서 MZ 세대로부터 구매를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Z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인 화이트 색상을 채택했다. 제품의 실체와 동일한 형태의 내부 회로 형상을 후면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21개 업종 가맹점주 절반 이상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다”

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16%는 구입강제 강요 경험 있어 이중 84%, 거부 불이익도 경험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관측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2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CCUS추진단 권이균 단장, 한국석유공사 안범희 실장,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립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 /한국중부발전

중부발전,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

7개 기관 참석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일 보령발전본부에서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CCUS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와 원성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등 총 7개 기관 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충청남도는 CO2의 이송과 활용 관련 업무협력과 행정지원, 공주대학교와 석유공사, 지질자원연구원은 저장 및 이송 기술 개발, 화학연구원은 CO2의 대규모 전환 및 활용 기술개발, 중부발전은 포집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대용량 포집·이송·활용·저장 기술 상용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CCUS추진단의 실행협약체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

로써 각 분야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본 협약을 통해 서해권 CCUS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CCUS 분야에 해당하는 2030년 1030만톤 감축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한국중부발전은 보령발전본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설비를 운영 중으로 세계적 수준의 포집효율과 누적포집량 10만톤 달성 등 안정적인 운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 실증기술 개발 준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CCUS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車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 전국 600여곳서 단속 나서 적발차량 정비 안하면 10일 운행정지 불응엔 벌금 최대 300만원 부과

이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연 등 배출가스 차량이 적발되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초미세먼지 배출비율이 높은 경유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스시스

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

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차량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14곳 지정

상원기계·테스토닉·한독이엔지 등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업 14개사를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로 5일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도입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기업을 녹색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대기 3개사(상원기계, 크리에어테크, 테스토닉) ▲물·수

질 5개사(한독이엔지, 해성엔지니어링, 유엔유, 코웨이엔텍, 자인테크놀로지) ▲자원순환·폐기물 5개사(원택글로벌, 성일하이텍, 알엠, 한국종합플랜트, 한영타이어) ▲기타환경 1개사(스피폭스) 등 총 14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61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액이 지정 전 대비 27%, 고용규모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2일 인천공항에 새롭게 개관한 실감 콘텐츠 미디어 전용 전시관 ‘Vivid Space’에서 관람객들이 전시관 콘텐츠 ‘Dream Flight’를 체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서 ‘실감 콘텐츠’ 즐기세요”

‘비비드 스페이스’ 개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역에 실감콘텐츠 미디어 전용 전시관인 ‘VIVID SPACE’를 개관했다.

‘VIVID SPACE’는 교통센터 내 유희공간(기존 영화관)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무료입장이다.

전체 넓이 120평(400㎡) 규모로, 몰입형 콘텐츠 위주의 SPACE 1, 체험형 콘텐츠 전시가 가능한 SPACE 2, 다양한 콘텐츠 홍보를 위한 K-콘텐츠 홍보관으로 구성되었다.

인천공항에 특화된 신규 제작 작품(‘Twilight’, ‘Dream Flight’)과 개관 기념 2022년도 우수 성과물(이지위드의 ‘Breath of Forest’ 등) 총 20여 종을

전시한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서 향후 세계 최정상급 수준인 국내 제작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VIVID SPACE가 위치한 교통센터는 코로나 이전 하루 평균 약 8만 명이 이용하던 공간으로, 인천공항의 또 다른 문화예술 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우수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인천공항을 대한민국 대표 K-컬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뜻 펼치도록… 호주기독교대서 지원”

교육인터뷰

김미자 호주기독교대학교 부총장

人定勝天(인정승천) 志一動氣(지일동기), 김미자 호주기독교대학교(ACC) 부총장이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새기던 말이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정하면 하늘의 뜻도 이길 수 있고, 사람의 뜻이 한결같다면 어떤 기세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4남3녀 중 넷째로 자라난 김 부총장은 형제가 많은 탓에 교육적으로 지원 받을 여력이 안 됐다. 결국 원치 않게 한 상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전교 2등으로 입학하는 등 고내에서 수재로 인정 받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정답은 고전독서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모임은 과거 전라북도 익산 시에서 각 학교마다 고전에 관심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고전을 읽고, 국가와 민족에 대해 토론하던 일종의 독서 모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행이다. 당시에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고전독서회를 통해 사고를 넓혔다”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기업의 회장, 장군, 여야 국회의원 등 어떤 큰 사람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해하며 간단히, 협약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은 이후로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오픈 마인드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총장은 관광호텔외식 분야의 교수임에도 대학에서 행정·정책과 부전공인 교육학,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본격적인 관광정책·외식 등을 연구했다. 또한 디지털교육계의 선구자로서 20여 년 경력을 쌓았으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각종 공사자문

위에서 활동하는 등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대선 캠프내 정책에서 디지털미래교육특별위원장, 조직에서 부분부장, 그리고 관광통합위원장 등을 수행했다. 또 15여년째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김 부총장은 “가까이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좁은 땅 덩어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너무 안됐었다.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OECD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라며 “과다한 경쟁, 등록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호주기독교대의 부총장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돌파구를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어릴 적 그는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돌파구를 제안하는 멘토가 됐다.

-교육 돌파구를 위한 방향으로 호주기독교대를 제안했다. 왜 호주기독교대인가?

“가장 큰 강점은 언어이다. 해외대학으로 입학할 경우 보통은 영어 등의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하지만, 호주기독교대는 한국어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교육을 원할 경우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며, 분기별로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본인이 고를 수 있다. 교민장학금, 유학생장학금, 사역자장학금 등이 지원돼 학비 부담이 적은 것도 메리트다.”

호주기독교대는 2013년 설립됐으며 영어 시험 없이도 호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ACC 과정을 통해 전문 직업 훈련을 중요시하는 학과



김미자 호주기독교대학교 부총장 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

학생 ‘교육 돌파구’ 위해 멘토 나서 호주기독교대, 한국어·영어로 강의 학비 부담 적고 분기별 입학 강점

학생 비자로 취업… 연장 등 지원 빠르면 3년 만에 영주권 받기도

들로 구성돼 있으며, 구조적 학습의 관점에서 전문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ACC는 성격적 진리에 기초해 모든 과정을 개설했다. 학생들은 ACC에서 훈련받는 3~4년, 혹은 6년간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게 된다. 모집 학부는 ▲상담학부 ▲신학부 ▲영상미디어학부 ▲스포츠학부 ▲사회복지학부 등이 있으며, 관광·호텔·외식조리학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스포츠학부는 태권도 2단 이상일 경우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호주기독교대는 ▲국기원 ▲서울관광고 ▲서울공연예술고 ▲한국글로벌세프코 ▲한국조리과학고 ▲서울컨벤션고 ▲서울특별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 ▲대한호국특공무술협회·전통무예협



(왼쪽부터)이동섭 국기원 원장과 김미자 호주기독교대 부총장이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주기독교대

회 등 다양한 기관, 학교와 협약식을 진행해왔다.

-청년들에게 호주를 기회의 도시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호주는 미국이나 타 국가와 다르게 학생 비자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도 봐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경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 청년들이 고스펙에도 일자리가 부족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호주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빠르면 3~4년이나 5~6년만에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19사태로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디지털서울예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코로나19와 함께 온라인 강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디지털대학의 경우 20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지만 일반 오프라인 대학들은 전혀 준비 없이 진행하다 보니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온라인·디지털 교육이 10년 정도 앞당겨진 경향이 있다. 한국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김미자 부총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취득한 후 2002년부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호텔외식경영학부장을 맡았으며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했다. 2022년부터는 호주기독교대 부총장(한국총괄)으로 취임했다. 이외에도 한국윌스나산업협회 회장, 세계한민족재단 상임이사, 한국관광연구학회 부회장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각종 자문위원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총장 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식품부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시 맞춤 지원전략은?” 대입설명회·진학상담 진행

서울시교육청 12일 세종대서 설명회 21일부터 닷새간 맞춤형 진학상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3 대입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학설명회’와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을 안내하기 위한 이번 대입 정시모집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다.

진학설명회에서는 ▲2023 수능 결과 분석 및 정시 모집의 특징과 이해 ▲2023 대입 정시 맞춤형 지원전략 ▲센진학 학부모용 진학상담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공교육의 진학 전문가가 강의한다. 또한, 현장 방문 시 학부모용 자료집 1400부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2023 대입 정시모집 대비 1:1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21일부터 25일까지 5

일간 진행된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광운대, 건국대, 명지대에서 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25일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시특별진학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상담 예약 사이트 (<https://sangdam.jinhak.or.kr>)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이다. 대면 상담에 참여하는 학부모 1600명에게는 학부모용 진학자료집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교사들이 개별·보급한 센진학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며, 학생·학부모용 상담프로그램도 별도 제공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2023 대입 정시 설명회와 1:1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수험생들의 대입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2022 제1회 U&I 페스티벌 by 세종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성과 공모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제 1회 U&I 페스티벌 행사 일한

세종대학교 LINC 3.0 사업추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은 지난 11일, 2022 제1회 U&I 페스티벌 by 세종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성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U&I 페스티벌의 행사 중 하나로 대학과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미래가치 확산을 위해 대학별 특화 전략 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및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한 산학협업 행사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선정된 우

수결과물 중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자정보대학, 예체능대학 등 4개 단과대 내부 심사를 통과한 총 10개 팀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모든 팀들은 50만원의 상금과 후원기업인 르사이트의 상품권을 지급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애플루트 팀의 권준원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짧은 회진 시간과 정확한 시간 고지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선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사)한국헌법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성우 교수는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학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결정됐다.



지 교수는 성균관대 법대 학·석사,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기금심사위원,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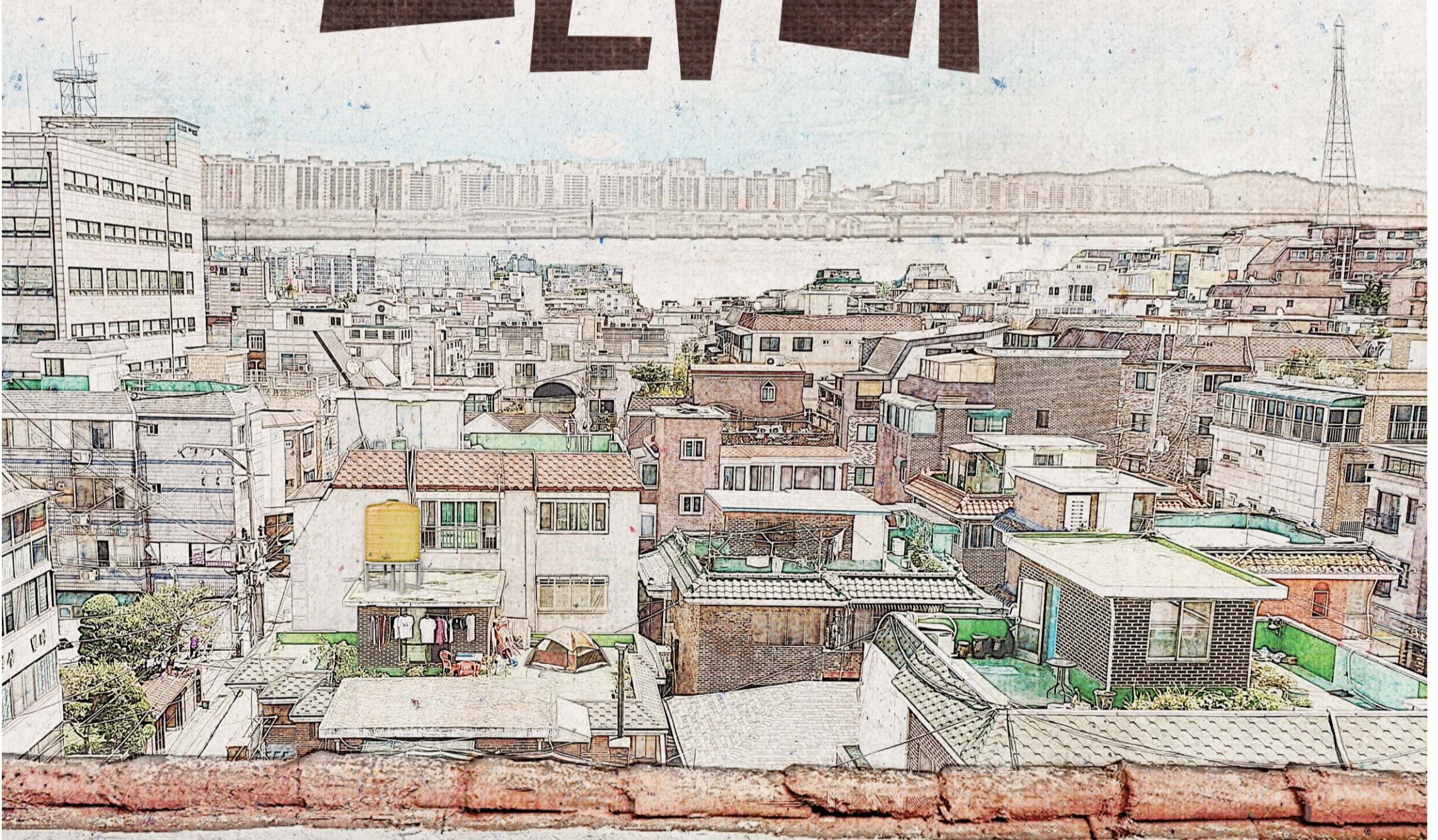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 성균관대 대외협력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9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는 등 ICT·미디어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헌법학회는 약 900여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학계 모임이다. 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부터 1년이다. /신하은 기자

골때리는 그놈들이 돌아왔다!

MUSIC DRAMA

망원동 브라더스



2022년 12월 1일 (목) ~ OPEN RUN **홍대 제이엘씨어터**

원작 김호연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 각색·연출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 조연출 전예정 | 제작 극단지우
조명디자인 김병철 | 디자인 김리나 | 기획 이제이컴퍼니·(주)브라더후드 | 주최·주관 극단지우

출연 김준희 권오을 이호준 신정만 맹상열 김현 황원상 오치운 고훈목 김초록 김영규 신현규 양현석 한병수 박창희 장희재 이서경 서은교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주)이엘엔터테인먼트 제이엘컴퍼니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 모이다티켓

‘떠오르는 전지훈련지’ 해남군, 동계스포츠 메카 자리매김

펜싱 등 4개 종목 8개 팀 훈련 예약
해남군서 연 4만명 선수 전지훈련
축구·레슬링 등 스토브리그 개최

땅끝 해남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달 말부터 체육진흥공단의 펜싱팀을 시작으로 동계전지훈련팀이 속속 해남을 찾고 있다.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동계전지훈련에는 펜싱 종목을 비롯해 골프, 역도, 육상 경기팀 4개 종목 8개 팀, 80여 명이 훈련 예약을 마쳤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2~2023 동계기간 동안 육상 20개 팀을 521명을 비롯해 14개 종목 130개 팀 1850여 명의 선수들이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4만여 명이 이르는 숫자이다.

또 축구와 레슬링 등 주요 종목의 스토브리그 개최도 예정되어 경기기간 동안 대규모 선수단이 해남에서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



전국남녀대학펜싱 선수권대회 모습.

지 제23회 전국 남·녀 대학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린 데 이어 3일부터 7일까지 제19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가 잇따라 개최돼 1750여 명의 선수들이 해남을 찾는 다.

해남군은 관광비수기인 동계기간 동안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음식, 숙박업소 등의 경기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코로나19 대응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해 꾸준히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해남군은 2021~2022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기간 동안 14개 종목 1만 5000여 명, 연인원 9만 8000여 명의 전지훈련 선수

단을 유치하며 도내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종목별 체육관, 수영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및 전천후 실내육상경기장 등이 우슬체육공원 내에 집약돼 있다.

잘 갖춰진 스포츠인프라와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전지훈련팀을 위한 재활캠프 운영, 선수단과의 맨투맨 마케팅 방식의 서비스 등 차별화된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한반도의 시작,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선수들이 전국대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할인금 지원

광양시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오는 5~28일 광양사랑상품권 사용 시 최대 15만 원을 적립해준다.

전남 최초로 광양사랑상품권 할인금을 15%까지 지원해주는 이벤트로 해당 기간 사용한 금액에 한해 지원한다.

연말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를 겨냥한 이번 이벤트는 광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활발하게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 육성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광양사랑상품권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광양(전남)=양수영 기자

옛 경주역, 복합문화공간 변신

천년고도의 관문으로 경주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옛 경주역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와 경주역사 및 광장 임대차계약 체결 후 1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4개월 간 876㎡ 건물면적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달 말 준공했다. 그간 경주역 개발은 종합개발계획 수립까지 철도기관, 민자사업 공모, 문화재 발굴 등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활용 대책을 수립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경주시, ‘자동계측시스템’ 도입… 안전한 저수지 관리

저수지 수위·외부변위 측정
실시간 안내 시스템 구축

경주시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저수지 관리를 위해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자동계측시스템’을 도입했다.

12월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덕동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자동계측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실시간 자동계측 시스템’은 자동으로 지하수위 및 외부변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수위계 5개소, 외부변위계 9개소가 설



경주 덕동댐 전경.

치됐다. 또 계측 데이터를 상수도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및 저장을 하는

서버구축 1개소도 함께 구축됐다.

덕동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댐 가

운데 전국에서 두번째로 규모로 최대 저수량이 3270만 2000톤에 달한다. 과거 덕동댐의 수위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을 수행할 때만 정확한 수위 값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공공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지하수위 및 외부 변위를 ‘실시간 자동계측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 구축으로 경주시는 이번 사업 구축으로 급격한 침하 및 지하수위 급상승 등의 이상 발생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광주시민 98% “가뭄 심각성 인식”

광주시, ‘광주 온’서 설문조사

광주시민 97%는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빨랫감 모아 한 번에 세탁하기 등을 우선 실천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최악의 가뭄 상황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홍보강화를 위해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이용,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광주시 시민정책참여단 1만9406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 항목은 가뭄상황 인식 정도, 물 절약 실천 방안, 가뭄대책 중 가장 시급한 대책 등 이었다.

가뭄상황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277명 중 97.7%인 2226

명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가 66%(1519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1%(707명)로 나타났다.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35명)였다.

물 절약 실천 방안 중 시민이 가장 우선 참여하는 방안에는 ‘빨랫감 모아 한 번에 세탁하기’가 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 내 수도밸브 수압저감’ 25%,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22%, ‘양치컵 사용’ 1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가뭄대책으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물 절약 실천(55%), 물 절약 캠페인과 홍보(23%), 제한 급수(16%), 한시적 수도요금 인상(3%) 순으로 답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나주시,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

작업 인력 지원 통해 퇴비화 추진

전남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나주시는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 자원화를 핵심으로 ‘민선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먼저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과 무단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리·콩·깨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고, 고령농가에는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한 폐비닐·농약빈병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거를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을 위한 공동 집하장을 기존 4곳에서 18곳으로 대폭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려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주(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하동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식품 친환경 인증 획득

하동군은 하동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하는 ‘기름을 뺀 들깨가루’와 ‘블랙보리차’가 유기농식품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기름 뺀 들깨가루는 원재료인 유기농 깻묵을 볶음 및 정선(식히는 과정), 분쇄, 금속검출 등의 가공절차를 거친 제품이다.

블랙 보리차는 원재료인 유기농 블랙 보리를 세척, 선별, 탈수, 볶음, 파쇄, 금속검출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친환경 인증사업자 지위를 추가 획득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하동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최우수상’

부산시는 지난 1일 ‘2022년 아동정책 포럼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자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과 경기, 충남 천안시가 ‘최우수상’을 ▲서울, 대구, 전북, 충북, 전북 전주시, 울산 북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3개 평가영역별 14개 세부 지표에서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부산=김영환 기자 metrobusan3@

월드컵 선전에 편의점 매대 ‘텅텅’... 주류·안주 매출 폭증

4개사 맥주 매출 상승률 100% 이상
편의점업계, 1+1 등 혜택 마련 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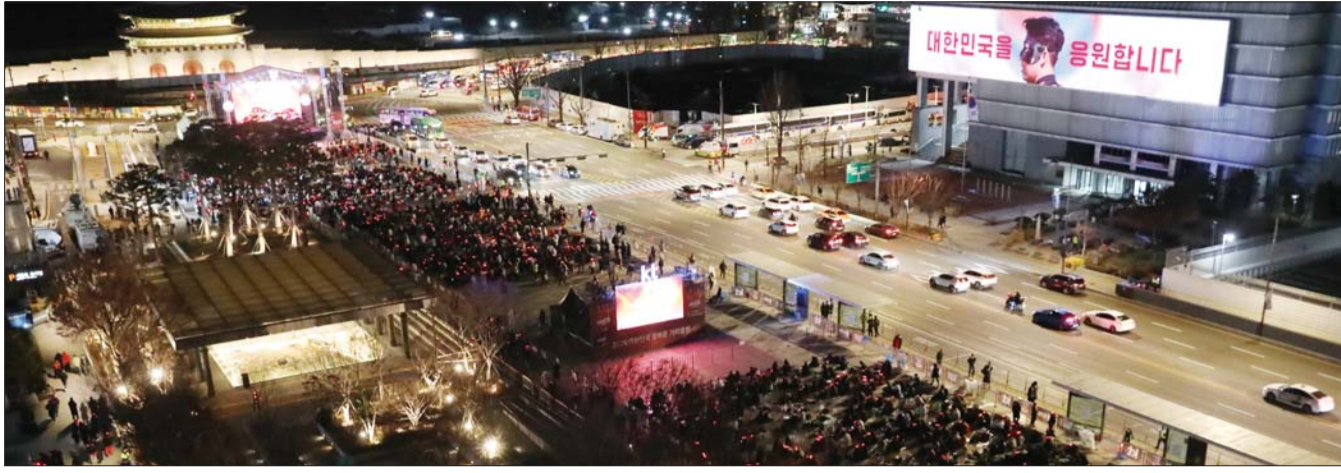
GS25 한달 간 맥주 4캔 번들 할인
CU 안주류 등 18개 품목 1+1 행사
세븐일레븐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이마트24 ‘12년전 그 가격’ 이벤트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날, 편의점 매출도 날았다.

4일 편의점 업계는 3일 0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이후 매출 증감율을 공개했다.

이날 경기에서 맥주 매출이 가장 크게 올라 4개사의 맥주 평균 매출 상승률은 126.85%로 나타났다. 주말 중 열린 만큼 와인 등 맥주 외 주류 매출도 함께 올랐다. CU는 와인이 124.5%, 소주 120.1% 올랐고 이마트24에서는 와인이 139% 늘었다.

주류 판매가 크게 늘며 안주류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특히 치킨 프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열린 지난 3일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붉은 악마들이 대형 태극기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이즈 배달 주문이 폭주하면서 치킨 수요가 편의점으로 분산되기도 했다. 각 사마다 치킨 매출이 크게 뛰었는데, GS25는 124.7% CU는 193.2%, 세븐일레븐 120% 올랐다. 이마트24에서는 닭강정 등이 포함된 안주류 매출이 92% 뛰었다.

이날 경기가 0시에 열려 새벽 2시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새벽 2시 이후 매출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CU에 따

르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매출이 111.9% 올라 정점을 찍었다.

거리응원이 펼쳐진 광화문 인근 점포들의 피크타임 매출도 2주 전인 11월 18일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추운 날씨 탓에 핫팩과 온장고 음료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 광화문 일대 수은주는 영하 1도, 체감온도 영하 4도를 밑돌았지만 경찰 추산 1800명이 운집했다.

GS25에서는 컵커피가 95.8%, 핫팩이 793.5% 올랐고, CU에서는 핫팩이 11.5배, GET 커피(즉석커피) 8.8배 등 방한을 위한 상품 매출이 올랐다. 세븐일레븐의 광화문 10개 점포 피크타임(오후 20시~24시) 매출은 평균 300% 올랐는데, 특히 돛자리 매출이 6600% 올랐다. 이마트24에서도 온장고 음료 매출이 10배 올랐다.

편의점 업계는 월드컵 특수에 대응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GS25는 한 달간 맥주 4캔을 1만1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하고 주요 인기 맥주 12종에 대해 2번들(1번들 4입) 구입 시 1만520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GS25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12월 6일 오전 6시까지 ‘GS25 하나다’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상품은 가나 초콜릿을 필두로 한 총 8종이다.

CU 또한 맥주 4캔을 1만원 행사가로 판매하고 11일까지 즉석식품, 안주류, 간편식 총 18개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앱인 세븐앱에서 대표팀 득점에 따라 경기 직후 3일간 최소 6%에서 최대 15% 모바일 상품권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 포르투갈 전에서는 대표팀이 2골을 넣어 모바일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24는 ‘12년 전 그 가격’ 콘셉트의 특별 할인 이벤트를 마련해 행사카드로 결제 시 2010년도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3高 영향... ‘고급화-가성비’ 양극화

〈특급호텔〉

〈대형마트·편의점〉

호텔 케이크 전년대비 30% 이상 올라
마트·편의점, 1만원 이하 상품 승부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양극화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특급 호텔과 편의점, 대형마트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공개하고 예약을 시작했다. 특급호텔 케이크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30% 이상 올라 대부분 케이크가 10만원 전후로 책정됐다. 20만원대 케이크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여기에 대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웠다.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한 케이크를 대표 상품으로 내걸었다.

최고급 케이크를 낸 특급호텔과 가성비 케이크를 낸 편의점·대형마트 모두 ‘고물가 현상’을 가격 책정 이유로 응답해 고물가 사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급호텔, 프리미엄 전략 강화**

특급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서울신라호텔 연말 한정 스페셜 케이크 ‘얼루어링 윈터’. 올해 특급호텔에서 낸 케이크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신라호텔

모두 공개한 가운데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케이크는 2곳에서 나왔다. 조선펠리스와 서울신라호텔은 각각 25만원에 달하는 케이크를 출시했다.

조선펠리스의 최고가 케이크 ‘화이트 트리 스페셜’은 지난해에도 같은 가격으로 선보인 제품으로 초고가이지만 조기 품절을 기록한 바 있다.



모델들이 홈플러스 ‘몽 블랑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출시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8종 중 7종을 2만원 이하 가격으로 냈다. /홈플러스

서울신라호텔은 한송이 꽃처럼 디자인한 ‘얼루어링 윈터’ 케이크에 25만원을 책정했다. 신라호텔 측은 올해 전년대비 프리미엄화를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모든 호텔 케이크가 1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책정되진 않았다. 플라자호텔은 10종 케이크를 공개했는데 이중 가장 저렴한 케이크는 5만원이다. 컨싱턴

호텔 여의도,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등도 6만원에서 9만원대 케이크를 출시했다. 그러나 주요 인기 호텔은 모두 가격을 최소 4만원(50%) 이상 올렸다.

호텔업계에서는 케이크 가격 인상을 고급화와 함께 페이스트리 셰프들의 인건비, 고물가 현상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마트·편의점업계, 소형·가성비 주력**
최고급 케이크에 맞선 ‘가성비 케이크’도 여느 때보다 많이 출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고물가 현상 속에서 3만원대 후반으로 출시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케이크도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소형 케이크를 쏟아냈다.

이마트는 이달 1일부터 E베이커리와 블랑제리 매장에서 ‘뽕뽕 미니 생크림 케이크’를 1만원 이하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홈플러스도 14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8종에 대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번에 출시한 8종 케이크 중 7종이 1만원대 ‘가성비’ 케이크인데 나머지 1종 또한 2만원대다. 마이홈플러스 멤버는 30% 할인도 제공한다.

편의점 업계는 소형화를 통해 ‘가성비’를 챙겼다. GS25는 카페 도레도레와 협업한 ▲도레도레딸기산타케이크 ▲도레도레우유구름케이크 2종(6500원)과 ▲돌체초코롱케이크 ▲블루베리롱케이크 2종(5900원)을 선보였다. 모두 미니케이크로 출시돼 1~2인이 미니 파티용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데커레이션이 적용됐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24, 결품 보상 등 점주 상생지원 확대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가 지난 2일 성수동 소재의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경영주 협의회 회장과 운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식 체결을 통해 이마트24는 ▲결품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상생 지원을 추가 및 확대한다.

결품 보상제도는 범위를 늘려 기존 프레스시 푸드와 간편식에서 유제품까지 보상한다. 해당 제도는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침수 등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모든 점포에 대해 본사 비용으로 재물·현금도난 보화를 가입 중이

어서 집기 및 시설피해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복구 기간 동안 영업을 불가능해 이 점포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점포 경영주가 가맹본부에게 중요한 사업파트너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서현 기자

신세계백, 반찬 구독서비스 개시

제철음식 등 각종 반찬 월 4회 배송

신세계백화점이 5일부터 반찬 월 정액 모델을 선보인다. 일정 금액을 내면 월 4회 제철음식과 반찬, 국, 찌개까지 집에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부터 우수고객 대상 시범 운영하던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이번 반찬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을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25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김재희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시화당’ 브랜드가 손잡았다.

김재희 대표가 직접 제철 음식과 절기 음식으로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별해 요리한다.

메인 음식은 떡갈비, 갈치조림, 소불고기, 제육볶음 등 대중 선호 메뉴로 준비되며 아욱국과 카레, 청국장과 무국, 두부새우젓국과 팔죽 등 각기 다른 취향에 맞춘 국과 찌개가 함께 포함된다. 반찬은 꼬막무침, 유채나물무침, 오징어새송이조림,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등 재철 식재료를 사용한 3가지로 메인, 국·찌개, 반찬 모두 매번 새롭게 구성된다. /김서현 기자

지분 투자하고 신약 공동개발... 제약사, 스타트업과 '상생'

대웅제약 '이노베어 공모전' 실시
공동 창업엔 R&D 자금 등 지원
셀트리온 피노바이오와 맞손
JW중외제약 에스엔바이오와 협력



(Seed) 투자 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기술창업 투자프로그램 팁스(TIPS) 연계 등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대웅제약은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팀에게는 1억원 규모의 조건부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대웅제약 임직원과 공동 창업할 경우 추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에는 팁스(TIPS) 연계 투자, 씨드 라운드 및 시리즈 A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선발된 업체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기술 검증(PoC) ▲아이디어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사업화 논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특허루키 프로그램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한 제약·바이오 특화 액셀러레이터 겸 팁스 운영사로서 국내외 유망한 연구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테크기업인 피노바이오와 항체-약물 접합체(ADC) 링커-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실시 옵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피노바이오가 가진 ADC 링커-페이로드 플랫폼인 PINOT-ADC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고품질을 타깃으로 하는 ADC 항암제를 개발한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피노바이오 지분투자와 공동 연구 개발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달 2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벤처 에스엔바이오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취득, 지분 5.1%를 보유했다. 이와 함께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양사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스엔바이오오는 2019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방오영 교수가 설립한 기업으로 마이크로RNA(miRNA)를 탐

색한 줄기세포 기반 엑소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엑소좀은 세포와 세포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차세대 약물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앞으로 자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의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에스엔바이오와 같은 유망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및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기존 주식의 인수를 통해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내년 초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손흥민 수술한 안와골절, 안정이 절대 필요"

이화의료원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에 안와골절 동반 된 형태 추정"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리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한국 손흥민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안와골절 수술 이후 안면 보호대를 쓰고 경기에 임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수술 이후 안정이 필요하지만 손 선수는 한국 축구 대표팀 승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와골절이 일어난 경우 상당기간 해당 부위 충격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토트넘) 경기에서 안면골 다발 골절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았다. 손 선수의 부상은 단순 안와골절이 아닌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에 안와골절이 동반된 형태로 추정된다.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강소라 교수는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은 일명 '쌍대뼈'라 불리는 협부를 이루는 뼈와 잇치아가 있는 상악골에 다수의 골절선이

수의 정확한 손상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기에 안면 보호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격렬한 운동을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인 안와의 골절은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이나 사고로 안면부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안면골 복합골절이 발생할 때 동반되기도 하지만, 독립된 안와골절은 눈이 공이나 주먹 등의 물체에 둔상을 입는 경우 눈 주변 뼈가 2차적으로 충격을 전달받아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

강 교수는 "만약 일상에서 안와골절 포함 안면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하며 내원해 검사받아야 한다"라며 "특히 진단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일단 코를 풀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은 안구에 충격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기에 안과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버드와이저가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리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 종료 직후, 한국 국가대표팀 황희찬에게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TM)' 트로피를 수여했다. 황희찬(왼쪽)과 인기 래퍼 더 콰이엇.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황희찬에 POTM 트로피 수여

래퍼 더 콰이엇이 트로피 전달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리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 종료 직후, 한국 국가대표팀 황희찬에게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TM)' 트로피를 수여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조별리그 1·2차전에서 뛰지 못한 황희찬은 FIFA 랭킹 9위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부를 결정짓는 역전 결승골을 넣어 한국팀의 2대 1 승리를 이끌었다. 황희찬은 후반 46분 손흥민의 패스를 극적인 결승골로 장식, 한국팀의 기적적인 16강행에 기여

하며 이날 경기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경기 직후 인기 래퍼 더 콰이엇은 버드와이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시상자로 나서 황희찬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월드컵 본선 기간 동안 매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해 트로피를 수여하는 행사다. 세계 각국 축구팬들이 직접 참여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최다 득표를 얻은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한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경기도서 아동급식 모바일결제 시작

포켓CU 결제시 20% 자동 할인

CU가 이달 5일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아동급식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시작한다.

아동급식 모바일 결제는 CU의 멤버십 앱인 포켓CU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회 포켓CU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 예약구매 메뉴에서 상품을 미리 결제한 뒤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점포에서 찾아가면 된다.

구매 대상 상품은 도시락,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햄버거, 디저트 등 총 70여 종이다. 포켓CU 모바일 결제 시 2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CU 멤버십 포인트 역시 1~2% 적립돼 부가적

인 혜택도 크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학생 등이 용자들이 실물 카드로 대면소비를 하면서 주변 인식에 불편함을 느낀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U는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부터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전국 단위로 아동급식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CU는 2009년 업계 최초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8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 2020년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2021년 화성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오설록 '프리미엄 제주별꿀' 출시

제주 자연의 진심을 담은 프리미엄 티(Tea) 브랜드 오설록이 프리미엄 별꿀 '프리미엄 제주별꿀'을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제주별꿀'은 100% 자연 방식으로 채밀했다. 높은 밀도와 낮은 수분 함량의 목직함 바디감이 향긋한 야생화 향기가 감도는 은은한 단 맛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휴대성이 높은 스틱 형태로 구성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제주별꿀은 오설록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제주에서 3대째 자연 채밀 양봉 노하우를 쌓아온 양봉 농가와의 협업으로 탄소동위원소비 -23.5퍼밀(%) 이하의 자연 벌꿀을 담아냈다. /이세경 기자

KFC "월드컵 팩메뉴 구매, 경품 받아요"

에어팟·선불카드 등 준비

치킨 브랜드 KFC가 월드컵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기념과 고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무패를 예측하라! 릴레이 이벤트'의 연장선으로 아쉽게 예측에 실패했거나 참여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기획했다. 해당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팩 메뉴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KFC의 인기 메뉴들로 구성했다. 먼저 '대한민국팩'은 타워버거, 스킨치즈버거, 닭껍질튀김, 너겟(4조각), 콜라'로 구성했다. '국가대표팩'은 징거버거, 타워버거, 블랙라벨치킨(2조각), 코울슬로, 콜라로 구성됐다.

KFC는 팩 메뉴를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3세대(10명), 선불카드 1만원권(50명), 12월 출시 예정인 신메뉴 치킨 쿠폰(50명)을 증정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불고기에 진심인편



불고기버거

불고기4DX버거

박물버거

한우불고기버거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우리는행, 취약계층에 한파대응 물품 전달

우리는행은 지난 2일 대3전광역시 서구청에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해 한파대응 물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한파대응 물품 지원은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주개발공사, 리코 등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재후 우리는행 대전총청영입본부 본부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왼쪽부터)가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호반 임직원 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진행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은 지난 3일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호반그룹



금호석화, 임직원들 '사랑의 헌혈' 동참

금호석유화학이 서울 을지로 시그니처타워 본사 앞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만 세 번째로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연 1회씩 실시하던 헌혈 행사를 작년엔 2회, 올해는 3회로 그 횟수를 늘렸다. /금호석유화학

인사

- ◆병무청 <과장급 정보>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심선용 △경남지방병무청장 임태군
- ◆농협 <농협중앙회 상무> △나중수 △신영수 △문상철 △박상용 △정용왕 <농협중앙회 상무부> △남궁관철 △박흥연 △이재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경기본부 홍경래 △전북본부 김영일 △전남본부 박종탁 △경북본부 윤성훈 △제주본부 윤재춘 △부산본부 정병규 △대구본부 손원영 △울산본부 김창현 <농협경제지주 상무> △박서홍 △이방현 △이찬호
-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훈련이사 임준건

부음

- ▲이선구 씨 별세, 이정복(한국전력 전 상생관리본부장)·선숙·선영·선경 씨 부친상, 이인철·신광호 씨 장인상, 남영우 씨 시부상 = 3일 오후 4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2-3410-6931
- ▲권경연 씨 별세, 권유경(종근당 제품개발본부 임상담당 이사)씨 부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 ▲반순연 씨 별세, 민경식·현식·경숙·경애 씨 모친상, 이우선·정영란 씨 시모상, 민병기(문화일보 정치부 차장)·병준(충북대 교수)·병수 씨 조모상 = 4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6일 오전 9시. 053-958-9000

LG전자, 전국 돌며 찾아가는 가전 관리 서비스 실시

한달간 300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점검 진행

LG전자가 추운 계절 사회복지시설 가전 관리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한달간 300여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달 9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와 청소기 등 LG 가전을 점검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ESG 경영 일환이다.

특히 LG전자는 추운 겨울 동결이나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제품인 세탁기를 미리 점검했다. 배수펌프 잔수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보온



LG전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재로 감싸는 등 예방작업과 통상균 서비스도 병행했다.

아울러 여름철 사용을 끝마친 에어컨도 냉매압력과 전선, 연결상태 등을 점검했다. 난방이 가능한 제품은 시운전을 통해 상태를 확인했다.

▲공기청정기의 HEPA필터, 부스터 팬 청소 ▲청소기의 흡입력, 소음, 배터리 성능 점검 ▲TV 화면 클리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도 진행했다.

LG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

로 연2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전점검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에어컨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여름철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피해복구를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지속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연채 부사장은 "LG전자의 사회공헌 비전인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더 편리하게 LG가전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중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의 마중물"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권오갑 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전달하는 성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올해 3월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8월 중부지방 수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 및 구호장비,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11월 이태원 사고

때는 심리치료,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급여나눔으로 만들어진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벤처협회, 다올금융그룹과 대학생 창업인재 발굴

2022 다올벤처챌린지

벤처기업협회가 다올금융그룹과 함께 대학생 창업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 다올벤처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4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 7월부터 모집한 결과 국내외 75개 대학, 총 137팀 신청해 약 3개월간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소셜벤처 분야와 ESG분야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벤처기업협회와 다올금융그룹이 진행한 '2022년 다올벤처챌린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어를 보유한 대학생 창업 인재 최종 10팀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상황으로 인한 스타트업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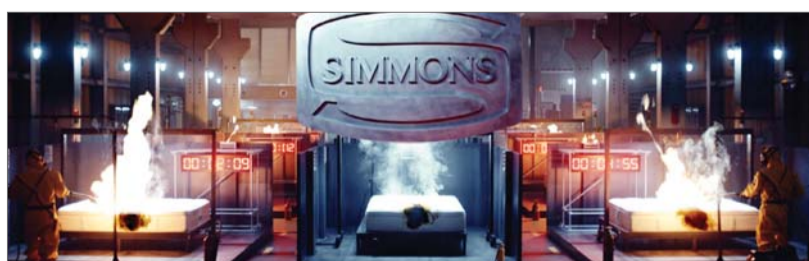
자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래의 창업 인재 발굴을 위해 대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시몬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선포

'침대 없는 광고'로 유명한 시몬스가 이번엔 '침대 있는 광고'를 선보였다.

4일 시몬스에 따르면 2023 브랜드 캠페인 'Made by SIMMONS'를 이달 본격 론칭했다. 이번 광고에선 침대 제조 과정에서 '오직 시몬스만 하는, 다른 침대 브랜드는 하지 않는 것'을 앞세우는 정공법을 택했다.

신규 브랜드 캠페인은 ▲ESG 경영 일환으로 선제 개발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여타 생산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1936가지 청결한 생산공정 ▲국가 공인기준보



시몬스가 침대 있는 침대 광고 'Made by SIMMONS'를 이달 본격 선보였다. 난연 매트리스편 화면.

다 높은 극한 R&D 테스트 세 편으로 구성했다.

'난연 매트리스' 편은 시몬스 침대의 대표적인 ESG 행보로 잘 알려진 난연 매트리스를 다룬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시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방지해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해준다. /김승호 기자

SK이노베이션 장애인먼저실천상 사회통합부문 대상

SK이노베이션이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교육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서 '사회통합부문 장애인먼저실천 대상'을 수상했다.

4일 SK이노베이션은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제정,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선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이 장애인식개선 봉사활동, 각종 지원사업 등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SK가스 KCGS 우수기업 지배구조 부문 선정

SK가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SK가스는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SK가스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정윤 기자

채무불이행 안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 안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건축물설계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甲건축사무소는 乙주택개발장비사업 조합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용역이 수행되던 중 乙조합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甲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乙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다면서, 乙을 상대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乙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 위 사건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사에 임의해제의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도급인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이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대체로 구체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 甲과 乙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급계약도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따라서 乙조합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보를 했으나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렇다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해 용역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임의해제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해 버리면, 도급인으로서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도급인의 의사 및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바른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가이드라인 일 뿐



기지수첩
원승일 (정책사회부)

“작업 전 안전교육 한다며 서류로 주는데, 그걸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물 먹고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데.”

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회사와 노동자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한다는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대해 묻자 한 노동자는 귀찮듯이 답했다.

실제 여러 있는 대기업들마저 서류 작업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한다. 그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에만 몰두한다. 여력없는 영세 기업은 안전 교육할 시간도 빠듯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직 기업들은 자율보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돈 쓰

는 일로 치부한다. 노사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가 그렇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노사가 작업 현장에서 일일이 위험 요소들을 찾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제3자인 안전보건관리 감독자가 주재한다. 보다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감독자에게 명령 권한이 없다. 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한국노총은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성 강화는 단순한 가이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노동부 장관이었던 알프레드 로벤스가 1972년에 쓴 ‘로벤스 보고서’ 발표 후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한계가 있어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200여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대폭 수용한 영국 정부의 결단도 있었지만 중심에는 더 이상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사 주체들의 책임과 개혁 의식이 있었다.

자율에는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노사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관리를 비용이나 투자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도, SPC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여성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안전관리에 공동 책임을 질 때 중대재해 감축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가이드라인 일 뿐이다.

/w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이익이 늘어난다. 48년생 밝은 희망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60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72년생 신용 있는 사람을 믿는 것도 자신이다. 84년생 일할 때 머리만 민지 말고 조금 더 노력을.



37년생 초대는 감사하나 지출이 과하다. 49년생 과감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6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즐거운 날. 73년생 장미가 만발하니 향에 취해 행동 실수를 한다. 8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38년생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 5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2년생 지금까지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74년생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86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39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먹는 것을 조심. 51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6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5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87년생 계획을 세워야 하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40년생 숨겨왔던 숨겨진 마음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52년생 신세를 진이에게 다시 은혜를 갚는 날. 64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데. 76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8년생 비바람이 몰아치니 외출을 자제해야.



41년생 안목을 넓히고 고집을 피우지 마라. 53년생 화려한 무지개를 바라만 본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77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89년생 기다리던 문서일수록 다시 살펴보라.



42년생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54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배우고 대. 66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7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90년생 가장 우선순위는 가족에게 두어야 할 텐데.



43년생 일이 미루어지지 마음이 조금. 55년생 자식의 도움을 고맙게 여겨라. 67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된다. 79년생 업무에 빠다 보니 기본 좋은 일일 생김다. 91년생 이직보다는 흔들림 없이 지내야 발전이 있다.



44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다. 5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듯하나 자중할 때. 68년생 나를 스스로 응원하고 주변을 사랑하자. 80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92년생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해서 일을 그르친다.



45년생 이제라도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 57년생 물려주신 조상님 땅의 소중함을 느낀다. 69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저라. 81년생 마음이 혼란할 때는 산책을 하며 정리. 93년생 항상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해야.



46년생 된다고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58년생 매대는 인맥을 통한 정보수집이 수월하다. 70년생 빛나는 창의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82년생 귀인을 만나서 학업에 열중하게 된다. 94년생 종일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47년생 상대방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9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71년생 목표가 높아 보여도 용기를 내자. 83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다 없다. 95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이기에.



김상회의四季 부적의 효과

미신이라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적의 이런 저런 방편들의 효험은 마음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약을 복용할 때도 플라시보 효과가 증명되었듯이 부적 역시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 솔직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을 불러 귀신이라 칭할진대 혼이 무엇인가. 육신만 없는 마음을 혼이라 이르는 것이다. 부적이라 하면 창고지와 같은 한지에 경면주사로 섬뜩한 형상이나 기호를 그려 넣어 싹된 기운이 범접치 못하게 하거나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형상이나 글자를 그려 사람 몸에 지니거나 그와 동등한 효험을 내게 하는 위치에 두는 것을 뜻한다.

경면주사는 붉은 색을 내는 규소가 원재료인데 전통적으로 붉은 색은 잡귀들이 두려워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기에 부적의 필수 재료가 된다. 그러나 때때로 생각해 보자면 부적을 일반화하는 사례들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삼재가 들었다 하여 너도나도 삼두일족음삼재부(三頭一足鷹三災符)를 집 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닌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효용이 있을까? 삼두일족음삼재부는 머리 셋에 다리는 하나인 매로서 세 개의 부리를 가지고 있다. 맹조류에 속하는 매의 강한 부리 그것도 완벽한 수인 세 개의 부리로 삼재 흉악을 쫓아 없앤다는 바램을 형상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인 집단인식 또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준다. 사람이 봐서 무서워하면 혼 역시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주가 되므로 역시 같이 두려워한다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이다. 인간사 여러 근심들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방편 부적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바이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두고 부적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미용
사우라이스트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95 | 10,000원

	1	9	8	5	7	
7	8	3		2	6	1
4	6			2	9	
8			1		6	
9	7			5	4	
3	9	6		4	1	5
	5	8	9	3	4	

5	3	7				
	9			3		5
6				9		1
3			8			5 4
	7	4				6 9
						7
	5			1		4
			9	4		6 8
		8	3	6		5

정답

1	9	7	8	6	8	9	2	1
8	8	6	1	2	9	7	1	9
9	2	1	7	1	9	6	8	8
7	8	9	9	8	2	1	1	6
9	1	8	6	1	7	2	9	8
6	1	2	8	9	1	9	8	7
1	9	9	2	7	8	8	6	1
2	6	8	1	9	1	8	7	9
8	7	1	9	8	6	1	9	2

9	6	1	1	9	8	8	7	7
2	8	9	9	7	6	1	8	1
1	7	8	1	8	2	9	9	6
8	1	1	6	2	7	9	9	8
6	9	8	8	9	1	7	1	2
7	9	2	9	1	8	6	1	8
1	8	7	2	6	9	1	8	9
8	1	9	7	8	9	2	6	1
9	2	6	8	1	1	8	7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0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8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中企 91% “시스템·멘토링 등 만족”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았고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10곳 중 9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삼성과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1.1%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만족도는 2018년 86.2%에서 86.4% (2019년)→88.7% (2020년)→91.1% (2021년)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 관련 사업 참여사 조사
만족 4년 연속 ↑ 불만족 0.5% 불과
고용 증가기업 18.3% 평균 3.5명 늘어
생산성 높고 수주 확대... 매출 증가로
中企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 확대를”

/유토이미지

스마트공장은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해선 76.7%가 ‘영향없다’고 밝힌 가운데 ‘증가했다’는 기업은 18.3%로 ‘감소했다’는 기업(5%)보다 많았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평균 29.8명에서 33.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

(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만족 여부에 대해 ‘보통’은 8.4%, ‘불만족’은 0.5%에 그쳤다.

삼성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200명의 전담 멘토를 두고 ‘현장 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당 3명이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6~8주간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 혁신활동과 컨설

팅에 대해 86.6%가 ‘만족’ (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만족도 역시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은 12.4%, ‘불만족’은 1%였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한 각종 솔루션(MES 등),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에 대한 만족도(83.7%)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69.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4.9%)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6%) 등이 주요 이유였다.

구축후 매출변화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9.2%가 ‘영향없다’고 밝힌 가운데 18.8%는 ‘증가’, 2%는 ‘감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증가’ 기업은 평균 87억 2000만원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감소’기업은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성증가, 수주확대, 품질향상, 주문물량증가 등의 순이었다. 매출 감소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음, 원가가격상승, 판로부진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93.5%는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95.5%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60.6%) ▲안전한 일터 구축(32.6%) 등이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최대 축제 ‘소상공인 대회’ 성료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동안 진행
모범 소상공인·공로자 등 포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2006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정부포상으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돌아갔다.



지난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왼쪽부터)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이영 중기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선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간 경기 의정부에서 신발가게(수덕신발)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사)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사 첫날 축사에서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

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성장하는 기업가로의 도약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조력자’ 벤처協, 창립 27주년

3만5000개사 소통 창구역할 특목
강삼권 협회장 “지속적 연결 통해
세상 바꾸는 주역 되도록 노력할 것”

창립 27주년을 맞은 벤처기업협회가 3만5000여 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와 소통 창구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4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했다.

협회는 95년 12월 당시 고(故) 이민화 메디슨 대표,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장홍순 터보테크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등 13명의 벤처기업 CEO들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산업 중심인 벤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출발한 것이 시초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창립을 통해 한국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엔 ▲코스닥시장 개설 주도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정 제안 ▲기술거래소 출범 주도 등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 안정망 강화 등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대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혁신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설립 당시 13개 회원사에서 지금은 1만7000여 회원사와 3만5000여 벤처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벤처업계를 대변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창구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 시급한 주요 현안들을 귀담아듣고 해결하는데 더욱 주력해 왔다. 올 초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엔 업계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해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정책 세부과제 66개가 반영되기도 했다.

최근엔 침체된 사회에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범사회적 기업가정신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는 등 더욱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회원과 함께한 27년의 시간은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 앤데미 시대에 협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앞으로도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벤처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가구, 최대 40% 할인 등 감사행사

내년 1월1일까지 전국 매장서 진행

에몬스가구가 1월1일까지 연말 감사 행사를 전국 에몬스 매장에서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전국 에몬스 매장에서 신혼 매트리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침대 프레임 40% 할인과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에코 콤포트 베개’를 추가 증정한다.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 프로모션 혜택뿐만 아니라 신혼 베스트 상품 20% 할인, 현대·우리·BC·KB국민·삼성·NH농협·하나 등 카드사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녹색산업 대표 기업 육성”... 우수한 경산업체 14곳 지정
▲ 농식품부, 노후 트랙터·콤바인 2만 5600대 3년간 조기 폐차 지원 /사진 뉴시스

▲ ‘아직은 일 하는 청춘’... 오늘부터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 방송연예인 매니저 노예계약 없게... ‘표준계약서’ 만든다



▲ “유해 화학물질 오염음 막자”... 판매사업장 100곳 점검
▲ “재유행 주춤세” 신규확진 4만6564명, 전주대비 446명 ↓ /사진 뉴시스

서울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 위한 글로벌 논의의 장 연다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 내일 개최
소득보장 실험 리더 전문가 등 참여
오세훈 시장, 직접 토론자로 나서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전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정책 실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원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헬싱키대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포핏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

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위르겐 슈프 교수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층 4.3%의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민원서비스 1위, 관악 '휠체어 운전연습장'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전국 첫 장애인 휠체어 운전연습장

서울시 관악구의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전동휠체어도 운전연습하세요!' 가을의 최우수 민원서비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4월 올 한 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신장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국민 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는 국민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평가돼 각각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로 선정됐다.

종로구의 '찾아가서 듣고 개선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가 매력상을,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윈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동행상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게 수여하는 '공감상'을 신설했는데, 12.5%를 득표한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의 안전 이용을 돕는 배리어 프리 시설 구현'이 선정됐다.

전문가심사 위원장을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용수 기자

"청년 정책의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공모 이벤트

서울시는 청년정책에 참여한 뒤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청년정책 참여사례 수기 공모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수기 공모는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3대 분야인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기회로 나눠 지난 7월부터 진행된다. 이 중 청년 구출과 청년 도약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지난달 마무리됐고, 청년 기회 분야 공모전이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콘서트 ▲서울시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거나 ▲청년 몽땅 정보통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은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대상(1명)에 상품권 50만원 등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앞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 구출' 정책 참여자 대상 공모에는 총 167건의 수기가 접수됐고, 대상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야기를 담은 '26살 여름의 숙제'가 선정됐다. 또 청년수당 등 '청년 도약' 정책 참여자 대상 공모에는 87건의 수기가 접수됐고, 청년수당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취업에도 성공한 참여자의 '고무 튜브'가 대상에 선정됐다.

1·2차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 33편은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블로그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게시된다.

/한용수 기자

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해외 사례 나눈다

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효과적 적용 방안 모색 예정

서울시가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행일상권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으로,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모든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권을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행일상권에 대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

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이 '보행일상권 사례 분석 및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디지털화 기존 공간경계가 흐려지고 단거리 생활권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파리, 바르셀로나 등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보행일상권 계획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태원 광운대 교수, 맹다미 서울연구원 박사, 김승남 중앙대 교수, 송기항 수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보행일상권을 도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활동에서 공간적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요즘, 미래공간전략으로 보행일상권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행일상권에 대해 다양한 해안을 나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1 | 해짐 / 17:14

12월 5일 (월)
음력 : 11월 12일

수도권 날씨
-8 ~ -2°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연천 -11/2, 동두천 -10/3, 가평 -9/3, 양평 -8/4, 용인 -5/2, 평택 -7/2, 수원 -5/2, 인천 -5/2, 파주 -11/2, 서울 -8/2, 백령도 -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도네시아 자바섬 세메루 화산 대규모 분화... "피해 우려"
▲美 국가정보국장 "우크라이나 전황 향후 수개월간 '소강' 전망" /사진 뉴시스

▲"日, 대만 침공에 대비 오키나와 주변에 병력 50% 증강 추진"
▲이스라엘 폭격기, 로켓포 피격 보복으로 가자지구 폭격



▲美 국방 "중국의 세계 석권 방지 위해 무력강화 필요"
▲우크라, 러 원유상한액 서방 합의에 환영... "더 낮춰야" /사진 뉴시스



[라이프]
월드컵 선전에
편의점 매대 텅텅
맥주·안주 매출 ↑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의 나와 회사 위해 최선... 최고의 운송 업체 만들 것”



세안통운 영업관리 이사 김태훈

“체계적인 고객사 관리와 안정적인 납품을 통해 (주)세안통운을 최고의 운송 업체로 만들겠다.”

김태훈 (주)세안통운 영업관리 이사(30)의 포부다. 그는 “동시간대 납품과 운송 시간 단축, 저렴한 물류비 등 회사가 내세우는 슬로건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자신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는 매일 오전 4시에 기상한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김 이사는 1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출근한다.

그는 “매 순간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다 보면 답을 얻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매일 4시 기상... 명상으로 하루 시작 수도권 등 전자·전장부품 배차지시 “새벽 공기 맡을 때마다 살아있음 느껴”

대부분의 사람이 잠든 오전 5시 10분. 그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1시간이 나 걸려 회사에 도착한 김 이사는 첫 업무로 사무실과 창고의 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끈다.

그는 “새벽 특유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면서 “제일 먼저 도착해 아무도 없는 회사 사무실의 불을 켤 때마다 기대와 설렘의 감정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오전 6시 30분. 김 이사는 사무실에 앉아 운송 나갈 차들을 배차한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전자·전장부품을 지방 및 수도권으



김태훈 (주)세안통운 영업관리 이사.

로 배송할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 이사는 “세안통운은 삼성전자와 LG 전자, 대우전자,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업을 포함한 1000여 개 고객사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동시간대 납품으로 다른 운송사 대비 운송 시간을 단축시켜 물류의 효율성을 최고로 끌어 올렸다”고 자부했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물류 및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세안통운은 전자·전장부품 전문 운송 업체다. 지난 197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새한운수공사로 첫발을 시작한 회사는 1991년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사회 지금의 세안통운으로 법인 전환했다.

세안통운은 지난 2010년 공동물류의 경제성과 전문적인 직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으로 이전했다. 2013년부터는 전자·전장부품 운송 노하우를 킷 서비스와 연계한 ‘세안스피드 킷’을 운영 중이다.

44년 동안 전자·전장부품의 운송 노하우와 전문성을 쌓은 세안통운은 현재 수도권(수원 용인 평택 화성)과 중부권(인천 청주 천안), 경북권(구미 김천 대구 경주), 경남권(양산 부산 김해 녹산 창원 마산), 호남권(광주 나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자·전장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약 1시간의 배차 업무를 끝낸 김 이사는 사무실을 나와 1톤 화물차에 올라탔다. 회사 근처 거래처의 경우 직접 운송에 나서 는 것.

그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까운 거리는 직접 운송을 다닌다”면서 “몸은 힘들지만 거래처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위안을 얻는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그는 모든 운송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해결한다. 김 이사는 “편의점 도시락을 고를 때면 진지해진다”면서 “오전 업무를 끝내고 먹는 도시락을 맛있게 즐기지 못하면 오후 업무의 능률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침 겸 점심을 마친 김 이사는 오전 11

시 40분쯤 회사로 복귀해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류 정리를 끝낸다. 전날 영업소가 보낸 납품 리스트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이 없나 추가로 확인한다. 그는 영업 관리와 거래처 관리, 창고관리 등 다양한 업무도 맡고 있다.

김 이사는 “다음날 거래처에 납품될 전자·전장부품을 직접 확인하고 창고로 가서 물건 관리를 한다”면서 “거래처가 납품 리스트를 보내주면 품번별로 박스를 정리한다. 파레트를 만들고 랩핑을 실시해 바로 운송 가능한 상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모든 업무를 끝낸 오후 3시. 김 이사는 퇴근을 준비한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 그는 퇴근 이후 휴식을 가질 법도 하지만 성장을 위해 달린다. 다음날 새벽을 위해 일찍 퇴근을 한다고 말한 그는 집으로 복귀해 보세화물관리, 관세, 수출입 공부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그는 “젊은 날의 열기 때문에 술을 먹는 등 놀고 싶을 때가 많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딘다”면서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나와 회사를 발전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배송 등 다양한 업무처리 퇴근 후에는 미래 위한 공부도 수면 중요성 강조... “건강 신경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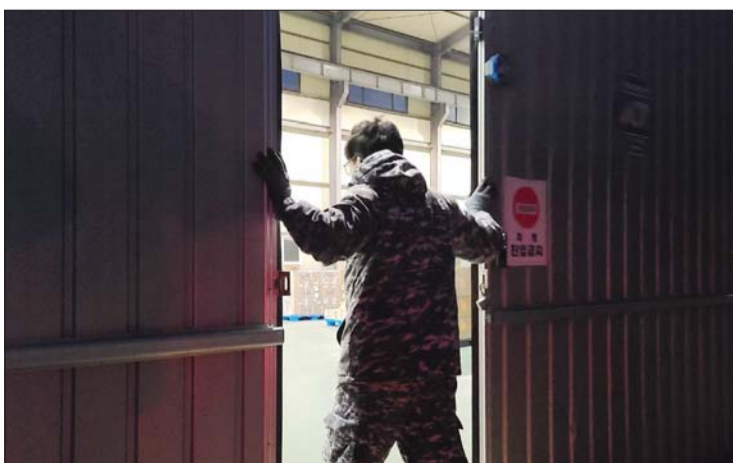
오후 10시. 그는 찬란한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하려 간다. 잠들기 전 그는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미국에서 수면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면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dh@metroseoul.co.kr



김태훈 (주)세안통운 영업관리 이사가 출근해서 회사 정문을 열고 있다.



김태훈 이사가 창고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있다.



김태훈 이사가 납품할 제품을 싣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결국 돌아오는 네이마르... ‘우승 후보’ 브라질이 더 강해진다 /사진 뉴시스
▲ 16강 떨어진 우루과이, 거친 항의에 사후 징계 위기



▲ 벤투호, 브라질전도 ‘손흥민 그래비티’ 적극 활용해야 /사진 뉴시스
▲ 정재원·이승훈, 4대륙선수권 매스스타트 금·은 싹쓸이

▲ 한일 월드컵 평행이론 눈길... 8강 한일전 상사되나
▲ 김주형·임성재, PGA투어 히어로 월드 챔피언지 3R 11위